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직인된 우리
를 구원해주셔서 자녀삼아주시고 주의 일꾼으
로 부르심을 위한 감사드립니다. 주의 복음
을 전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세상에서도
오직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라 인정함을 받는 자
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
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고린도후서 10장 18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9월 19일 (토) 제 1551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과도한 사역 불구, 교회공동체 지킨다!

라이프웨이, 미국 목회자 1500명 교회사임 이유 조사 보도

미국 목회자들은 과도한 사역들에 따른 스트레스와 상대적으로 낮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단지 1% 정도만이 강단을 떠나고 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미국 교회, 복음주의 진영과 흑인 교회들에서 시무하고 있는 목회자 1,5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지난 3월 5일부터 18일까지 전화 설문 조사를 통해 은퇴나 사망에 따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들로 지난 10년 동안 교회를 사임하게 된 이유를 설문 조사했다(95%신뢰도, +/- 2.7% 오차율). 그 결과 2005년

강단을 떠난 목회자들은 13% 정도에 불과해, 소위 "지독한 사역(brutal job)"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교회 목회자들은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있음을 드러냈다(The One Percent: Why So Few Pastors Quit A 'Brutal Job': How 1,500 ministers feel about their past pulpits and current churches).

이번 조사는 미국 목회자들이 어렵고 과도한 사역 중에서도 처음으로, 지난 목회자들과 현 목회지에서 느끼는 점들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힘든 목회 환경 속에서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목회자들 역시 자신들의 사역이 힘들다는 점을 고백하고 있다:

△84%·하루 24시간 전화에 대기하고 있다.

△80%·교회에 갈등이 있다고 예상한다.

△54%·목회자의 역할이 너무 과중하고 기대치가 높아 부담스러워한다.

△53%·종종 목회자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걱정스러워한다.

△48%·교인들이 요구하는 목회 요구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량 이상이라고 느낀다.

△21%·교회가 바라는 목회자에게 바라는 이상이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이번 설문 조사를 책임진 스타트 맥코넬(S. McConnell) 라이프웨이 부회장은 한마디로, 목회는 "지독한 사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오늘 미국교회의 문제는 목회자들이 사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목회자들이 직면한 사역 환경이고, 교회는 반드시 이에 대해 기도해야 하고, 목회자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백코넬은 진단한다.

동 설문 조사는 북미선교국(NAMB) 주관으로, 휴스턴에서 목회자들의 건강을 주로 돌보는 의사(Richard Dockins)가 맡아, 왜 목회자들이 탈진해서 사임하게 되는지를 조사해, 어떻게 하면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라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지난 10년 동안 강단은 그래도 안정적이었다.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45%의 목회자들이 10년 전부터 같은 교회에서 시무했다. 2005년에 사역했던 목회자들 중

12% 정도만이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겨 사역했다. 그리고 10%는 은퇴했고, 3%만이 소년했다.

강단을 떠나게 된 다른 이유들은 소소하다. 2%만이 사역이 아닌 다른 직업으로 직종을 변경했고, 5%는 교회에서 사역하지만 담임이 아닌 다른 사역으로, 결국 이 두 가지 이유로 강단을 떠난 목회자는 1년에 1%에 미치지 못한다.

현재 담임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것은, 바로 전임자들이 강단을 떠나게 되는 것이라고, 37%가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전임 교회들에서 갈등을 경험한 목회자들이 64%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주 원인이라고 26%의 목회자들이 말한다.

이외에도, 목회자 본인의 가정 문제들(17%),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13%), 목회지에 대한 부적응(13%), 탈진(10%), 개인적 재정 악화(8%), 그리고 질병들(5%)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들이다. 목회에 대한 불충분한 준비는 3%에 불과했다.

많은 담임 목회자들은 상대적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35%가 부임한지 5년 미만으로, 목회 경력에 비해 임지가 새로운 환경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57% 정도가 이미 담임 목회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3면으로 계속>

캘리포니아 주 안락사법 통과

미 언론, 상원의회 찬23, 반14 10년 한시법안 가결 보도

질병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환자가 의사 도움을 받아 안락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했다. 뉴욕타임스,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상원의회는 11일, 찬성 23, 반대 14로 이런 내용을 담은 10년 한시법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의사의 도움을 통한 조력사는 스스로 약을 먹을 수 있는 환자가 여러 차례 서면으로 요청해 의사 두 명의 승인을 받아야 안락사가 이뤄진다. 전 과정은 증인 두 명이 지켜봐야 한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승인하면 캘리포니아는 오리건,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에 이어 미국에서 네 번째로 말기환자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가 된다.

아직까지 브라운 주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그는 가톨릭 예수회의 신학생 출신이다. 가톨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금기로 여기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법안 통과로 말기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미국 내 분위기는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 갤럽의 올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70%가 말기환자에 대한 안락사 허용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작년보다 10%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올해 들어 말기환자 안락사와 관련한 법안이 제출된 주는 미국 50개주 가운데 절반 정도에 이른다.

하지만 말기환자 안락사는 엄연히 삶을 끊는 행위인 까닭에 가치관에 따른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고통을 회피하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원이자 찬성론자

인 마크 레노는 "말기환자 안락사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옳을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화당원이자 반대론자인 테드 게인스는 "늙고 약한 이들을 세상에서 내쫓는 것"이라며 "사회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치관을 떠나 경제적 빈곤 때문에 말기병 환자가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선택하는 비인간적인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난하거나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입원, 치료비 때문에 삶을 끝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리건 주에서 바버라 웨그너라는 환자가 자신이 앓는 질병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자 안락사를 선택한 사례가 있었다.

캘리포니아대학에서 의료윤리를 연구하는 애런 케리애티 교수는 "말기환자 안락사는 삶의 꼬인 말미를 싸고 편리하게 단번에 정리하는 도구로 변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케리애티 교수는 이 법안이 백인 중산층의 지지를 받았으나 건강보험을 충분히 들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에서 배척된 사실을 주목하기도 했다.

현재 세계에서 말기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스위스 등이 있다.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Online) 기독교상담학과

- 1. 학사: 성서학(BABS), 기독교상담학(BACC)
- 2. 석사: 목회학(M.Div), 신학(MAT), 기독교상담학(MACC)
- 3. 박사: 목회학(D.Min)
- 4. 세계 모든 곳에서 통신과 온라인으로 학위 취득 가능
- 5. ATS 인가 학위로 미국 주류 기독교 대학과 학점 인정 및 편입학
- 6. 연방정부 학비 지원, 선교사 장학금, 목회자 장학금, 부부 장학금

미국 대학교 인증기관
ABHE, ABHE, ATS, TRACS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www.wmu.edu /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지나친 SNS, 정신적 피해와 우울 증 부른다!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박시경 박사
(그레이스신학대학원)



14면
하나님의 구원계획
라홍재 목사



16면
가족이 함께 TV 보면 긍정적 효과 많다!

Since 1999
HYM
HYM청년연합회
www.hym.cc

제 33회
HYM 청년 연합 집회

**ONE BODY
IN CHRIST**

Ephesians 4:1-16 There is one body and one Spirit, just as you were called to one hope when you were called (Ephesians 4: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4:4)

장소 남가주 사랑의 교회 Hyssop Hall KDC Bldg
일시 2015. 09. 26 - 27 (토요일, 주일) 저녁 7:00시
강사 09.26 - 김성환 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담임)
09.27 - 노창수 목사 (남가주 사랑의 교회 담임)

특별 세미나
09. 26. 15 (토요일)
오후 4:00 - 6:00시
백은실 대표 (Global Coffee Break)

HYM : 714) 393-5135 (Douglas Kim 대표)
남가주 사랑의 교회 KDC Bldge Hyssop Hall :
Kingdom Dream Center, 1900 W. Crescent Ave, Anaheim, CA 92801



시론

프로 신앙으로 살라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20세기를 맞이하기까지 인간은 새가 아니기 때문에 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1903년 12월 17일 미국의 키티호크에서 라이트 형제는 바람이나 수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동력에 의해 플레이어 1호라는 비행기를 날게 하였다. 비록 이 실험에서 비행기는 12초 밖에 날지 못했지만 인간도 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열매를 맺은 첫 사건이었다. 그 이후로 인간은 비약적으로 항공기를 발전시켰다. 나는 비행기가 제트 엔진에 의해서 양력의 도움을 받아 자유자재로 뜨고 내리는 이 시대에도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렇게 무거운 쇠덩어리가 하늘에 뜨고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사실에 신기하고 놀랍다는 생각을 한다. 사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최대의 중량이 388톤까지 된다고 하니 300여 명을 태우고 날아가는 점보 여객기 정도가 된다면 대개는 350톤의 무게라고 한다. 인간의 지혜가 놀랍기만 하다.

지난 7월 14일에는 태양계의 가장 끝에 있는 명왕성을 그랜드 피아노 크기의 뉴호라이즌스호가 9년반 만에 거의 50억km를 총알속도의 20배에 해당하는 초속 5천km로 주파하였다. 이것은 서울에서 친 골프공이 LA에 와서 홀인원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정말 인간의 능력은 한마디로 대단하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것이지만(시8:5)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지성적인 면이 작동할 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발휘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런 면은 감정이나 의지가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놀라운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알게 해준다. 내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우주산업까지 개발시킬 수 있는 인간은 생각을 바꿈으로써,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무한대의 능력까지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가 감옥의 열악한 현실을 넘겨서 견딜 수 있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이 받은 소명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이며 결의이다. 그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참되고 칭찬할만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충고하였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 자신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따라서 행동하라고 한 것을 보면 그는 단순한 이론 제시에서 그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는 삶에 관하여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였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완전한 프로였다. 그는 발상의 전환의 대가라 할 수 있다. 어디 바울뿐인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엘리야 등등 수를 헤아리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극한 현실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련을 이겼다. 그들은 한결같이 신앙의 프로들이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신앙생활에서도 프로는 아마추어와 다르다. 아마추어는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지만 프로는 항상 기뻐한다. 아마추어는 필요할 때 기도하지만 프로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 아마추어는 좋은 일에 대해 감사하지만 프로는 번사에 감사한다. 아마추어는 시험 당하면 절망하지만 프로는 시험을 당할 때 감당할 만하다고 말한다. 아마추어는 주님의 일을 하지만 프로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일을 힘쓴다. 아마추어는 영적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을 한두 개 갖고 있지만 프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오늘 삶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인다. 그래서 아마추어 신앙인들은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기도 하고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드러내지 못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신앙의 프로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나름의 연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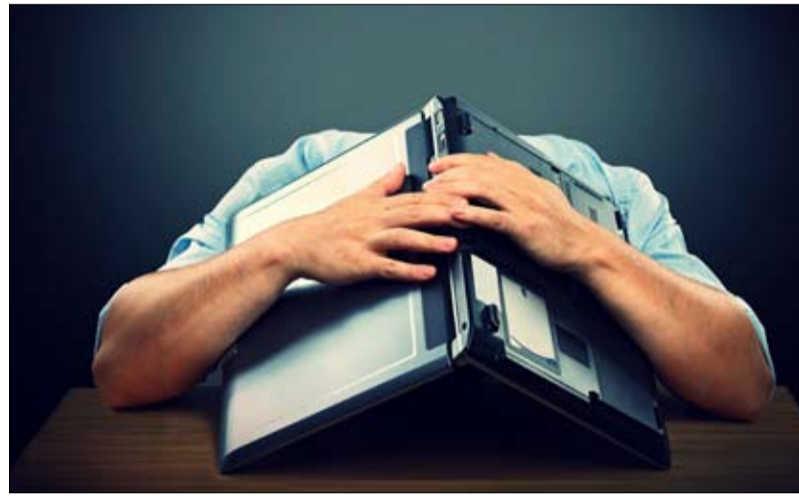
(3면으로 계속)

지나친 SNS, 정신적 피해와 우울증 부른다!

뉴스위크, 소셜미디어 하루 2시간 이상 이용 청소년들 연구 결과 보도

스마트폰에 매달려 사는 전형적인 십대들의 일상은 다음과 같다: "늦은 오후까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스마트폰에 매달려 있었다. 페이스북 뉴스피드를 살펴보고, 트위터를 리프레시해 새로 올라온 글들을 읽고, 유튜브 비디오를 시청하면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하루 2시간 이상 이용하는 십대 청소년은 자살 충동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또 자신의 정신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평가한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우울증과 연관 있으며,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보통 사람에 비해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Two Hours of Social Media a Day Linked to Suicidal Thoughts in Teens).

지난 7월 초 심리학 학술지 '사이버심리학, 행동 및 소셜네트워킹(Cyber 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이하 사이버심리학)'에 실린 이 연구에서는 또 소셜미디어를 장시간 이용하는 십대 청소년은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할 확률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공중보건 당국이 젊은 층의 정신건강에 더 신경 써줄 것을 요구했다. 통계 전문 사이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12년 소셜네트워크 사이트 접속자 수는 14억 명을 웃돌았



하고 외출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끊임없는 오락거리는 이런 경향을 한층 더 부추긴다.

연구 참가자들 중에는 우울증을 앓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2주일 동안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관찰당하는 데 동의하기 전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는 설문지에 답했다. 연구진은 GPS를 이용해 그들의 위치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참가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 가려냈는데 그 결과의 정확도가 87%에 달했다. 노스웨스턴대학의 연구원 소롭 사샤는 보도 자료에서 스마트폰 사용 습관 추적이 전통 방식보다 우울증 진단에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전통 방식에서 환자들은 슬픈 정도를 1부터 10까지의 척도로 표시한다. 하지만 사샤에 따르면 그런 답변은 기계적이고 믿을 수 없는 경

미 청소년 92%, 최소 1일 1회 소셜네트워크 이용 24%, '거의 지속적' 온라인 상태 유지

다. 페이스북은 지난 3월 등록 계정 수 15억 개(비활성화 계정 포함)를 돌파해 세계 최대의 소셜네트워크 사이트로 떠올랐다. 퓨 리서치센터의 최근 연구에서는 미국 십대 청소년 중 92%가 최소 하루 한번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하며, 24%는 '거의 지속적으로'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심리학'에 실린 연구는 7-12학년(12-17세)의 캐나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들 중 25.2%가 소셜네트워크 사이트를 하루 2시간 이상 이용한다고 답했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청소년기의 좋지 않은 정신건강이 소셜미디어 과다 이용의 원인인지 결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소셜미디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부모와 교사들이 청소년들의 정신적 고통이나 자살 충동을 감지하기 위해 정신 건강 훈련을 받기를 촉구했다.

"이 연구 결과는 소셜미디어를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젊은 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아이디어를 지지한다"고 저자들은 썼다. "젊은 층이 전문가의 유용한 정보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한편 최근의 또 다른 연구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과도하게 이용한 후에는 기분이 우울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같은 시간대에 페이스북에 들어오는 친구들과 부정적인 사회적 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 국민건강보험(NHS)의 자문기관인 공중보건국(PHE)은 지난해 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하루 4시간 이상 컴퓨터를 하는 어린이는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고 발표했다.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층에 널리 확산되면서 대두된 또 다른 정신건강의 위협은 사이버 폭력(cyberbullying)이다. 메건 마이어 재단에 따르면 2011년 9-12학년의 미국 학생 약 220만 명이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 사이버 폭력에 관한 최근의 한 조사에서는 온라인 상의 조롱과 괴롭힘에 노출되는 정도와 우울증 발병률 사이에 일관된 연관성이 발견됐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콕'족은 반드시 우울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통한 SNS가 외부 세계와 개인을 연결해주는 듯하지만, 오히려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 페인버그 의대의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장시간 한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이 우울증을 부를 수 있다. 인터넷의학연구 저널에 발표된 이 연구에서는 또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평균적으로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주요 저자 중 한 명인 노스웨스턴대학 행동심리학 교수 데이비드 모어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골치 아픈 일이나 고통스런 감정, 또는 불편한 대인관계에 대한 생각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회피 행동"이라고 말했다. 또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자기 안으로 침잠

우가 많다. 반면 스마트폰은 환자의 일상적인 활동을 드러내지 않게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연구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진은 어떤 환자에게 치료가 필요한지 식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썼을 뿐이다.

노스웨스턴대학의 사샤는 보도 자료에서 이 대학의 향후 연구가 환자에게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바꾸도록 독려하는 것이 기본 향상에 도움이 되는 지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99 (대표) / (323) 665-9025 (광고국)
Fax: (323) 665-0056 (편집국) / (323) 6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춘

■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제 34회

남가주 찬양 합창제



■ 일시: 2015년 9월 20일 (주일) 7:00pm

■ 장소: 남가주 주님의교회
1747 Nogales St. Rowland Heights, CA 91748

■ 출연: 남가주 샬롬교회, 생수의강 선교교회, 남가주 주님의교회, 감사한인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LA Contemporary Worship Choir, 선한목자장로교회, 글로벌 선교교회, 주님세운교회

■ 주최: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 후원: 미주복음방송 | 기독교일보 | 미주크리스천 | 크리스천헤럴드

과도한 사역 불구, 교회공동체 지킨다!

(1면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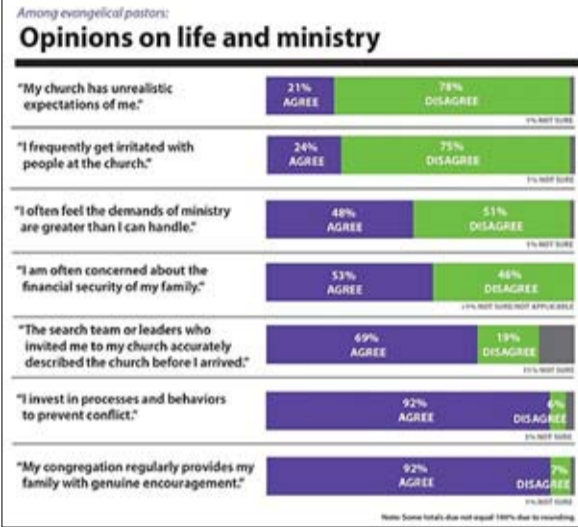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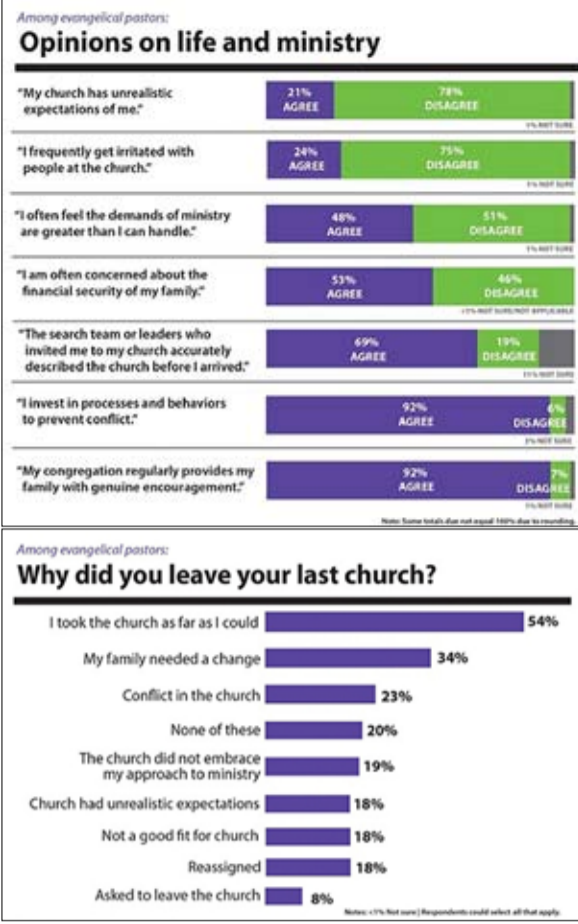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전임 목회지에서 사역을 계속하고 싶어 했지만, 떠나게 됐다고 응답했다(54%). 그러나 23%는 교회 문화와 사역에 변화를 시도했다고, 갈등이 조성돼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대답했다.

교회내 갈등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즉 심각한 정도의 개인적 공격들을 받은 목회자들이 34% 정도였고, 교회 개혁이나 변화를 시도했다가 반대에 놓인 목회자들이 38%, 목회자 자신들의 리더십 스타일(27%), 목회자에 대한 과도한 기대치(25%), 그리고 교리적 차이에 따른 갈등(13%)이 있었기 때문이다.

갈등이 벌어지는 동안, 38%의 목회자들은 평신도 지도자들과 마찰이 있었고, 31%는 노회나 지방회 또는 총회와의 갈등을 경험했다.

이번 설문엔 참가한 목회자들 중 10명당 3명 이상이 자신들의 가정이 변화를 필요해서, 교회를 떠나게 됐다(34%). 20%의 목회자는 자신의 목회적 접근과 변화를 교회가 수용하지 못해서, 그리고 부담한 목회자에 대한 부적응과 너무 높은 기대치 때문에(18%), 교회를 떠나게 됐다. 그래서 18%는 사임을 스스로 했고, 8%는 사임할 것을 교회로부터 통고 받았다.

피상적인 관점에서,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목회자 가정의 목회 관여도는 긍정적이다. 결혼을 한 목회자 10명 중 9명은 자신의 배우자가 사모로 살아가는 것에 열정을 보여, 교회 사역을 완성해나가는 데 도움을 주며, 그리고 목회자의 아



Note: Some totals do not equal 100% due to rounding.

Among evangelical pastors: Opinions on life and ministry

"My church has unrealistic expectations of me."

"I frequently get irritated with people at the church."

"I often feel the demands of ministry are greater than I can handle."

"I am often concerned about the financial security of my family."

"The search team or leaders who invited me to my church accurately described the church before I arrived."

"I invest in processes and behaviors to prevent conflict."

"My congregation regularly provides my family with genuine encouragement."

Note: Some totals do not equal 100% due to rounding.

Among evangelical pastors: Opinions on life and ministry

"My church has unrealistic expectations of me."

"I frequently get irritated with people at the church."

"I often feel the demands of ministry are greater than I can handle."

"I am often concerned about the financial security of my family."

"The search team or leaders who invited me to my church accurately described the church before I arrived."

"I invest in processes and behaviors to prevent conflict."

"My congregation regularly provides my family with genuine encouragement."

Note: Some totals do not equal 100% due to rounding.

지난 10년래 목회지 변경 12%불과... 직종변경 2%, 사역변경 5% 목회자와 그 가정 위해 기도하고 격려,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

내로 살아가는데 만족을 느낀다.

그러나 목회자들 중 20%는 대조적으로, 가족들이 너무 과도한 교회의 요구에 불만을 토로하고, 35%는 지나친 사역의 무게 때문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도 용이하지 않다고 말한다.

북미선교도 목회자관리 및 돌봄 담당 사무국장인 마이클 루이스(M Lewis)는 "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목회자들마다 털어놓는 고충은 바로 지나친 그리고 밀려

드는 사역들로 인해 목회자 자신과 가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라고, 목회자들의 스트레스를 대변해준다. "건강한 가정 관계를 가진 목회자만이 온전하게 목회에 역량을 발휘해, 교인들을 제자로 구비시켜 지역사회에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결국 과도한 사역과 업무에서 탈진을 방지하기 위해, 목회자들은 스스로 대비를 하고 있다. 94%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방해받지 않고 있고, 92%는 갈등을 방지

인한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설문엔 응한 92%의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정기적으로 자신들의 가족에게 격려와 기도를 보내주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1)교회 리더십이 목회자와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고 2)격려하고 3)인정해주며 4)목회자와 그 가정이 교회를 위해 한 노력과 열정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장기간 아니 은퇴까지 목회자가 해당 교회에서 시무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세상의 속임수를 믿지 말라.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때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조차 높이 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낙향한 아마추어로 살지 말라. 강인한 신앙의 프로로 당당한 문제에 직면하라. 날아갈 수 있으리라.


시론

(2면에서 계속)

주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시길 믿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전진하면 제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인들이 나약해져버렸

다. 근거 없는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교인들을 들뜨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에 처음부터 꼬리를 내리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으려는 자세는 더욱 큰 문제다. 우리는 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절보 여객기도 되고 우주선도 된다. 나는 벽을 느끼는 현실에 가로 막힐 때마다 "거위의 꿈"을 되뇌곤 한다. 헛된 꿈은 독이고 세상은 끝이 정해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편 126편: 오늘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126:5-6).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려움을 만나면 나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곳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육신에서는 사망의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망의 생각은 기회가 주어지면 사망의 생각이 넘치도록 솟아납니다.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이 들지만 내적으로 사망의 생각으로 인하여 더욱 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생각은 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가 살아 있습니다(롬7:17). 그 죄에서 사망의 생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을 지라도, 그리고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여전히 죄가 살아 있습니다. 이 몸을 내가 떠나기까지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나타나는 죄의 활동은 사망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타나는 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생각은 나의 삶을 사망하게 하고, 내 영혼을 죽움병으로 고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생각으로 마음이 병이 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영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생각으로 마음이 굳어지면 마음에서는 사망의 여러 가지의 생각으로 인하여 마음에 뱀과 전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생의 길에 주님이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생각으로 마음이 병이 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영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생각으로 마음이 굳어지면 마음에서는 사망의 여러 가지의 생각으로 인하여 마음에 뱀과 전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생의 길에 주님이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요10:3-5).

즉 생명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이는 주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음성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줄로 알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고통스럽고 실의에 빠지고 어두울 때 주님의 인도하심의 음성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즉 그 말씀은 나에게로 가까이 나오라고 하십니다. 사망의 생각에서 슬퍼하지 말고 나에게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기도 하라고 하시는데

기도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장래 소망을 거두게 하는 길입니다. 낙심하고 불평하고 슬퍼한다고 하여 소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하나님에게로부터 소망이 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씨를 뿌리러 나아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살아 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소망의 구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가 보입니다. 너무 멀리 있으면 여호와 이레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니. 내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니. 문제는 나의 마음이 가까이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임으로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씨를 뿌리러 나아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씨를 뿌려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는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듯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가까이 하는 자에게 네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과 같이 거두어 가도록 하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오라고 하시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힘을 다하여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사망의 생각이 들릴지라도 속지 말고 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애틀연합장로교회

장학생 선발

시애틀연합장로교회는 한인 크리스천들의 학업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많은 한인 대학생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신학이나 기독교 교육 및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 *일반학부과 대학원과정은 이수하고 있는 교인이나 교역자 자녀
 - *미국장로교(POUSA) 소속 교회 활동 교인은 우대함
 - *신청자는 워싱턴주 거주 세계 교인이여야 함
 - *신학생 신청자는 미주지역 (ATS 인정신학교)을 상대로 모집함
- **신청방법**
 - *시애틀연합장로교회웹사이트 (<http://www.yunhapchurch.org>) 자료실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자신의 신앙생활 및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한 자기 소개서 형식의 에세이를 쓴 뒤 관련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 *시애틀연합장로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소속 신청자는 해당교회담임목사추천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
 - 1.신청서 2.자기소개서형식의 에세이 3.이력서
 - 4.대학합격통지서(신입생의 경우), 성적증명서(재학생)
- **신청마감**
 - *2015년 9월 30일 교회도착분까지 마감. 최종 장학생 선발자는 10월중 개별 통보함
- **접수처와 연락처**
 - *UPCS(장학위원회), 8506 238th St, SW, Edmonds, WA 98026

시애틀연합장로교회 장학위원회 박성준 장로(425-772-6566), 신동은 집사(224-489-6902)



시애틀연합장로교회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Seattle

TEL: 425-776-2711

FAX: 425-774-2499

YunhapChurch.org

시애틀연합장로교회

중고등부 담당 교역자(Part Time)청빙


시애틀 연합장로교회에서는 중고등부를 지도하실 교역자를 청빙합니다.

제출서류

- 1) 이력서(사진)
- 2) 신앙고백서
- 3) 자기 소개서
- 4) 추천서 2통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시애틀 연합장로교회
8506 238th st, s.w, Edmonds, wa, 98026
425-776-2711



시애틀연합장로교회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Seattle

TEL: 425-776-2711

FAX: 425-774-2499

YunhapChurch.org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좋은 사람 좋은 이웃

성경은 언제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주는 일'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좋은 이웃이 되라는 것도 우리 자신의 삶을 좋은 인생으로 만들고 싶은 주님의 계획을 반영한다. 구약 전도서는 말한다. "너는 네 식물을 물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누가 주인이 될지도 모르는 그것을 너희가 주면 언젠가는 우리 때에든지 우리 자녀의 때에라도 그걸 도로 찾게 된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는 말씀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토록 강조하시는 것

이다. 연연인 김혜자 씨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연기는 참 자랑스럽다고 감탄한다. 그런데 그 김혜자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 "저는 연기할 때는 괜찮은데 연기가 없을 때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을 보고 나서부터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들을 도와주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들을 구해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저를 살려준 것입니다." 그랬다.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는 일을 해서 내가 그 아이들을 건져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나를 건져주었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이 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말하자면 나를 어려운 만날 때마다 건져주시려고 좋은 이웃 되라 하시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랬더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아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좋은 이웃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36말씀을 보라!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네 의견, 네 생각에는 어떠한가? 그것이다. 좋은 이웃이 되려면 우선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 너는 누가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네 생각이 어떠한가? 바로 그 생각이 물으시는 것이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당연히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 닥치는 대로 산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며 휩쓸려 간다. 남들이 생각 없이 인생을 사니 자기기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기도 그렇게 그 분위기에 젖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이웃이 될까?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 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존경받지 못하는 걸까? 어느 분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불교신자는 국민의 31%의 신뢰를 받는데 우리 개신교는 12%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불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훈련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1년에 몇 차례 산사에 가는 것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매 주일마다 와서 말씀으로 훈련받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은 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그 불교인들이 어떻게 더 좋은 소리 듣느냐는 것이다. 우리 주일마다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듣는데 도리어 수치스러운 말을 듣느냐는 것이다. 간단하다. 좋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생각

하지 않는 것이다. 감상은 해도 실천은 안한다. 삶에 현장에서 좋은 이웃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안하는 것이다. 생각없이 그냥 사는 것이다. 세상 핑계대면서 심지어 더 악랄하게 사는 교인도 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 없이 사니 인생을 어린 아이같이 사는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면서 생각 없는 인생을 살면 그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어떤 분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살지 생각하지 않는 백성은 망한다 했다. 우리 성도들은 생각으로 기도도 한다.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기도할 수 없다. 항상 생각해야 한다.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은 아주 좋은 크리스천 투자자였다. 그런데 그는 하루 일과를 기도하면서 시작했다. 더구나 중요한 투자를 결정해야 할 순간에는 반드시 기도를 했다. 그런데 그가 아주 의미 깊은 말을 했다. 그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즉시 응답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단절이 되면서 힘이 한곳으로 모이

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해야 할 일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좋은 이웃되고 싶으면 저 사람에게 정말 뭐가 필요할까! 정말 이 사람에게 좋은 이웃되는 길이 뭘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다. TV 바둑체널에 '생각의 힘'이라는 타이틀이 있다. 생각하면 정답이 그 묘수가 나온다는 뜻일 것이다. 성도들도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라 한다.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이 되라고 지난주일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가정에서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좋은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야 한다. 직장에 가서도 내가 좋은 상사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좋은 동료 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정답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사람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그 성품을 만든다. 그리고 사람은 성품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이 되자.

푸/른/초/장

조일래 목사
(수정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동시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감사는 믿는 자의 성숙한 신앙 인격의 구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하고 있으며,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들로 채우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모두 다 아름답습니다. 감사 그 자체가 바로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감사들 중에서도 더욱 아름다운 감사, 더욱 돋보이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역경에서의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참으로 성숙한 믿음과 인격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자녀와 온갖 재산을 한 순간에 다 잃어버린 극한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평안히 이르러 "내가 모태에서 적신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단 6:10). 정말 향기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영국의 밀턴(1608-1674)은 44세에 장님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막힌 시련 속에서 그는 원망이나 불평 대

다운 감사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세상 소리를 들곤 합니다. 자기는 잘되기를 바라면서 남이 잘되는 것은 은근히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원수도 사랑하며, 위하여 복을 빌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도록 명령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잘되는 것을 배 아파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들은 남이 잘될 때 꼭 내 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있는 감사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 축복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바로 남을 위한 감사입니다. 이 향기로운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 넘치는 감사가 더욱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큰 부자집 아들이 중병에 걸렸습니 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그는 너무나 기뻐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화려한 거둔 파티를 열었지만, 하나님께는 겨우 3만원의 감사헌금을 드렸을 뿐이었

아 알고 믿는 자는 "이 엄청난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마음으로 넘치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넘치는 감사는 참 믿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넘치는 감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쉽고 부족한 것을 느낄 뿐입니다. 그러기에 넘치는 감사야말로 더욱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기쁘고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조건 없는 넘치는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왕상3:5)고 말씀하셨습니다.

최 많은 여인은 향유 욕망을 깨뜨려 넘치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이 값진 것을 허비한다고 비웃고 책망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시요, 해결자이신 주님만 바라옵시다"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엔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몇 백, 몇 천만 원씩 사례를 하면서도 하나님께는 겨우 몇 만 원의 감사헌금을 드리는 자들이 많습니 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가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형식적인 감사를 싫어하십니다. (13면으로 계속)

더욱 아름다운 감사 (빌립보서 4장 6-7절)

1. 역경에서의 감사가 더욱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풀려갈 때 감사합니다. 득남이나 득녀를 감사하고, 좋은 학교 합격을 감사하며,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건강 회복, 승진, 영전, 승리, 성공 등을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일이 뒤틀리고, 역경의 비바람이 휘몰아칠 때에도 감사하는 것은 훨씬 더 돋보이는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순경에서의 감사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감사이지만

이 나왔사온즉 또 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1:21)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정말 놀랍고도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다니엘도 시기로 자기를 죽이려 하는 무리들의 흉계를 다 알면서도 그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신에 "주께서 세상을 향한 나의 눈을 감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향기로운 감사를 받으시고 흐뭇하시어 훗날 음에게 더 큰 복을 주셨고, 다니엘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으며, 밀턴에게는 "실락원"과 "복락원"이라는 유명한 책의 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2. 남을 위한 감사가 더욱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남을 위한 이런 감사가 참으로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모두를 훈훈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남을 위한 감사는 가장 큰 계명인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마22:36-40)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요, 우리 주님의 삶과 그분이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는 새 계명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습니 다. 받은 은혜는 큰데 감사는 쥐꼬리보다 적은 형식적인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넘치는 감사를 기대하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베푸셨기에 감사도 넘치는 감사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2:7)고 말씀하십니다. 망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

2015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본 협회는 아래와 같이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 대상 :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및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Letter 또는 A4 size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며, 제출마감일은 2015년 10월 15일 미서부시간 오후 5시까지입니다.
- 제출처 :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 시상 :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 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주최 :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박재호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 미주기독교방송(로스엔젤레스, 미국)
- 미주복음방송(로스엔젤레스, 미국)
- 미주크리스천신문(NY, LA 미국)
- 아멘넷(뉴욕, 미국)
- 유럽기독교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 크리스찬 월드(토론토, 캐나다)
-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추천도서



입양가족, 홍성사



데이빗 플랫 저, 두란노



일리스터 맥그래스, 성서유니온



김미진 저, 규장



데이비스캐너먼 저, 국제제자훈련원



게리 체프만, 생명의말씀사

후원 *도서구입처

-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4) 마태복음 19장 3-12절

본문은 바리새인의 시험으로 여자에게 수치 되는 일이 있을 때 이혼하는 것이 합법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에 대한 대답을 하는 대신에 창세기 2장 24절에 제시된 결혼질서라는 규범 안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본문은 결혼이 본질에 있어서 한 몸이고, 구속력에 있어서 신적이며, 지속성에 있어서 영구적 이므로 결코 해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혼증서의 남발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혼증서는 인간이 만든 법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며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입니다. 이혼증서 제도는 창세기 2장 24절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것으로 원래에 없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본문의 '음행'이란 단어는 실제로 성범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성범죄는 간음 뿐 아니라, 음행, 매춘, 근친상간, 동성애, 짐승과 교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사람이 음행을 범할 때, 즉 미혼인 사람과 성관계를 할 때 그는 자신의 결혼서약을 깨는 것이며 또 배우자와 맺은 한 몸의 관계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5) 음행에 대한 이해

미국장로교회(PCA)는 보고서에서 음행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자위행위와 그 자체로 포르노가 가진 파괴적인 이혼에 근

님의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위행위와 포르노는 거의 성적인 의도를 동반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위행위와 포르노가 배우자 이외의 사람에게 향할 때 음욕의 죄가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음욕을 이혼의 사유로 활용하기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음욕은 마음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습관적인 자위행위와 포르노 사용에 대해서 이런 행위가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한 대체물로 역할을 할 때, 이런 행위를 하는 동안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누군가를 공상할 때, 따라서 이런 종류의 성범죄는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결혼관계를 깰 수 있으므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장로교회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다른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이혼하는 악을 범한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불신자의 상태에서 결혼하여 부부생활을 하던 중에 배우자 중 한 명이 기독교인이 되어 혼합혼 관계에 들어가게 된 부부의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혼합혼이라도 결혼의 연합은 깨어지지 않는 안되며,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떠나거나 내어보내는 일을 주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고 어떤 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12-13절).

당시 고린도교인들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오염시킬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 749-0577 E-Mail: tslpc0316@gmail.com

Q: 저는 동네의 개척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 집사입니다. 제가 사는 주변에는 큰 교회, 중형교회도 있고 작은 개척 교회도 많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를 선호하고 그런 교회에서 직분 받아 봉사하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애나하임에서 이 집사

A: 한 마디로 주님은 이 지상교회가 큰 교회거나 작은 교회거나 교인 회집의 수나 건물 사이즈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관심이 없십니다. 우리가 하늘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보면 100층 건물이나 10층 건물이나 2층 건물이나 다 그만그만합니다. 하늘, 우주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지상교회를 볼 때에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수와 건물을 가지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따지지 하나님은 외적인 것보다 그 교회가 진정 하나님을 향한 중심 즉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판단기준은 건물크기나 교인숫자가 아니라

교회가 대형교회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많고 훌륭한 목회자와 설교, 교육 등 나름대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큰 교회가 반드시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반드시 안 좋은 것도 아니며 은혜로운 예배, 설교, 친밀한 성도의 교제, 신실한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수나 사이즈를 가지고 교회나 목회자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3장을 보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칭찬이 없고 책망만 받은 두 교회가 있는데 사데교회와 라오디게아교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교회는 다 큰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두 교회는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도 탄탄하고 건물도 화려하게 지은 현대식 교회로, 사람들이 선호하고 불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두 교회를 보시고 사람의 판단과는 달리 칭찬은 전혀 없고 책망만 하십니다. 사데교회를 향해서는 "네가 살아 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부자들이 많고 현대식 건물에 재정이 넉넉한 교회였던 라오디게아교회에 대해서는 "네가 차지도 덤지도 아니하니 내 앞에서 토하여 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7교회 중에 전혀 책망을 받지 않았던 교회가 2교회가 나오는데 서머나교회와 빌라델비아교회입니다. 사실 이 두 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수도 적게 모이고 재정적으로도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부흥하지 않는 작은 교회요 사 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별 볼일 없는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 교회를 주님은 매우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과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와 판단은 아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을 주시면 얼마든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가 현재 비록 작아도 교회를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섬기십시오. 목회자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늘 외롭습니다. 목회자의 주변에서 목사님을 위로하고 힘이 되는 좋은 동역자가 되십시오. 내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십시오(갈6:6).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임교회)



이혼에 대하여 (중)

었던 것인데, 그 당시 만연한 악함 때문에 임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임을 밝히셨습니다.

예수께서 내린 결론은 첫째 부당한 이유로 아내를 내어보낸 후에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남자는 분명히 간음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결혼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인이 간음을 범하는 경우에 이혼하는 것이 정당하며, 이혼으로서 결혼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재혼을 해도 간음을 범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혼이 성행했으며 당시의 이혼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엄격한 것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나니라"는 말씀에서 음행은 간음보다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많은 성범죄를 가리킬 수 있고 간음은 그 가운데 단지 하나입니다. 음행은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에 비유적으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0-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거는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위행위와 포르노는 명백하게 몸이 하나 된 관계를 깨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그것들에 너무 집착해서 그것들이 배우자에 대한 결혼의 권리를 이루는 대체물이 된다면 그것들을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깨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습관적인 성범죄의 예를 인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불명확한 사례이다. 또한 성경원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판단은 총회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도원리는 사실 성범죄가 분명히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관계를 깨트리지는 되어야 한다. 어떤 성범죄는 반드시 부부의 연합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성범죄가 배우자와 맺고 있는 한 몸이라는 연합관계에 대한 대체물이 되는 방식으로 표면화되면 총회는 이 성범죄를 '포르네이아(porneia)'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우리는 습관적인 자위행위와 포르노 이용을 간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는 홀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음욕은 간음이라는 예수

6) 고린도전서 7장 10-15절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의 생활에서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신자는 이혼하지 말고 만약 신자가 이혼한다면 다른 대상자와 재혼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복합니다.

먼저 바울은 음행을 한 자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쫓아내야 하며(5:2,13),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아야 한다(5:11)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결혼한 기독교인 부부 사이에서 음행이 발견되면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관계를 아예 단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음행의 경우에 이혼으로써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장 11절과 12절에서 결혼 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기서 갈라진 상태 그대로 공동체 안에서 지내거나 다시 재결합할 수 있음을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부는 부패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음행이 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꾸로 결혼관계 안에서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에 의해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곧 신앙과 불신앙의 갈등도 결혼관계를 해소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혼합을 깨지 않고 유지시키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할 때"입니다. 믿는 배우자와 함께 계속 살기를 원하는 믿지 않는 배우자는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된 결혼생활을 받아들이는 셈입니다.

반대의 경우, 곧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경우에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내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15절). 그러나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이혼하기 전에 이혼을 막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믿는 배우자가 이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는 신자에게는 이혼권과 동시에 재혼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8면으로 계속)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On Campus Courses

2015 가을학기 강의 안내

- Sept 28-Oct 2(9월 28 -10월 2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er & Dr. Stephen Park
Oct 5-9 (10월 5-9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8(10월 8일) 특강: Dr. Scott Moreau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er
DI 8220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구약에서의 문화)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iberius Rata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네팔의 로바(LOBA)



바람이 많고 건조하며, 사막지역이다. 그곳은 중국 지베의 티벳에 의해 세 면이 둘러 싸여있다. 1992년 까지 이 지역은 외부세계와 차단되어 있었다.

로바 족은 네팔의 북쪽 무스탕 지역에 살며, 무스탕 지역은 1만1천-1만3천 피트 고지로, 무스탕은 네팔에서 반독립 왕국이다. 전설에 의하면 용맹한 군인인 아마 팔(Ama Pal)에 의해 1830년대에 무스탕 왕국이 세워졌다고 한다. 그 경계는 Kali Gandaki 강의 발원지를 포함한다. "무스탕"이란 이름은 "포부의 평원"(Plain of Aspiration)을 의미하는 티벳에서 비롯됐다. 사회적으로 로바 족은 왕실을 포함한 세 그룹으로 나뉜다. 사회 규범은 존경과 명예의 가치에 기초를 두고 있다. 가족들의 구조도 이와 같은 전통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전

통에 따르면 장남이 그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며 차남은 불교의 승려가 되어야 한다.

삶의 모습 로바 족은 주로 농부이거나 목축 혹은 장사를 한다. 돌로 집을 짓고 네모난 돌을 얹게 짜아 지붕을 만든다. 지붕은 매우 일정한 크기로 돼있고, 부드러우며 각 모서리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달 수 있는 작은 네모난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대부분의 집들은 가깝게 붙어 있고 창문이 없으며, 산을 따라 고층으로 붙어오는 바람에 집을 보호하기 위해 벽에 구멍이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바람의 맹렬함 때문에 집들은 남쪽 방향으로는 짓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이는 통풍의 부족

으로 여름에 집이 매우 뜨거워지는 약점이 된다. 비록 대부분의 네팔에서 봉건제가 폐지됐지만 무스탕에서는 건재하다. 이것은 로바족이 집을 만드는 방식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예를 들면, 봉건영주는 3층의 집을 짓는다. 하지만 평민이나 하층민은 벽 칸막이가 없는 1층의 집을 짓는다. 로바 사회에서는, 3개의 다른 이름을 갖는다. 첫 번째 이름은 라마나 불교 승려가 짓는다. 두 번째 이름은 출생시 부모로부터 받는다. 세 번째 이름은 구루(guru)나 힌두 스승이 짓는데 비밀에 부친다. 한 로바 여자가 여러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는 한 여자가 남편이 여러 명이면 과부 가 될 경우가 거의 없을 거라고 믿

기 때문이다. 이것은 로바족의 특이한 특징이다. 하지만 현재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으며 젊은 세대는 그것을 버리기 원하지만, 구세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로바족 옷은 히말라야 지역에서 사는 티벳족과 매우 유사하다. 남자와 여자 모두 머리를 길게 기르고 종종 머리를 땋는다. 신앙 로바족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다. 두 불교부류인 Kargyupa와 Sakuyapa가 상무스탕에서 두드러진다. 네 가지 큰 종교 축제가 있는데, Gine, Gensu, Gelung, Nayuene이다. Nayuene는 일년에 한두 번 열리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 많은 규칙이 있다. 이 규칙에는 48시간 금

식과 침묵이 있으며,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이 시간 동안 금욕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로바족은 봉건영주의 압제에 있던 군인에 의해 세워진 왕국에서 산다. 무스탕 왕국에 사는 2만5천 로바족은 지리적으로 영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사람들로 남아 있다. 그들 중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 주님은 로바족이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원한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왕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 '동성결혼 공증거부'에 일부 판사 가세

미국에서 동성결혼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보수파의 '영웅'으로 떠오른 법원서기 킴 데이비스의 뒤를 따라 일부 판사들까지 동성결혼 저지에 가세하고 있다.



13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주 맥다웰 카운티에서는 치안판사 4명 전원이 결혼식 집전을 거부하고 나섰다. 미국 결혼식은 치안판사처럼 법규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이 함께 참석해 지켜봐야 효력을 지닌다. 이들 판사는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의 평등권을 들어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내리자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며 일손을 놓았다.

동성커플의 결혼한 집행하지 않으면 차별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결혼식 집전을 거부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맥다웰 카운티는 옆 동네인 러더퍼드 카운티에서 치안판사를 일주일에 사흘씩 빌려서 결혼식을 집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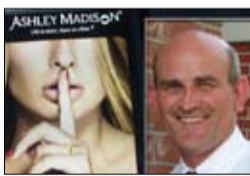
이들 판사의 결혼식 거부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합법이다. 주 자체 법령에 따라 일부 공무원들이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결혼식 집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 당국에 따르면 전체 치안판사 가운데 5% 정도가 종교적 신념을 들어 이 같은 방식으로 결혼식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앨라배마 주에서도 판사 6명 정도가 동성 연인을 포함한 전체 신랑, 신부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 카운티의 닉 윌리엄스 판사는 "연방대법원 결정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데다가 각 주의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윌리엄스는 "아무한테도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차별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륜조장' 애슐리 매디슨 가임 자책 목사 자살

불륜을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한 사실이 들뜬 것에 자책하던 미국의 한 목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9일 CNN 방송을 비롯한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미시시피 주 펠링턴의 제1남부 침례교회 목사이자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의 침례교 신학대학 교수인 존 김슨(56)은 지난달 24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7월께 애슐리 매디슨의 모회사인 아비드 라이프 미디어를 해킹한 단체가 3천200만 명에 이르는 애슐리 매디슨 가입 회원의 정보를 무차별로 인터넷에 폭로한 지 엿새 만의 일이다.

해킹으로 폭로된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한 그는 이 사실이 널리 알려져 직업을 잃을까 고심한 끝에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 유서에서 그간 자신을 괴롭혀 온 것을 시기 순으로 나열한 김슨 목사는 애슐리 매디슨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았다.

유서를 살핀 그의 아내 크리스티는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울함에 대해 얘기하던 남편은 공개된 애슐리 매디슨 회원 명단에서 이름을 발견하고서 너무나 미안하다고 적었다"고 전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품위 있고 늘 자상하며 자비를 베푸는 데 모든 것을 쏟아 부은 남편이 자신에게만큼은 관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취미로 자동차를 수리하던 김슨 목사는 학교에서 학생의 차량을 무료로 고쳐준 훌륭한 교수이자 상당한 이웃이었다고 미국 언론은 소개했다. 그러나 과거에 겪은 우울함과 약물 중독으로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티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으로서 무척 힘들다"면서 "사랑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 아빠이자 남편이며 친구를 잃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다"며 애슐리 매디슨 사태로 고심하는 이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김슨 목사의 사망 소식을 접한 아비드 라이프 미디어는 위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 회사는 "김슨 목사의 사망은 해킹이라는 범죄 행위가 순박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가를 떠올리게 하는 참담한 것"이라고 애도했다.

지난달 중순 해킹 단체가 애슐리 매디슨 회원 명단을 공개한 뒤 미국 텍사스 주와 애슐리 매디슨의 본사가 있는 캐나다 토론토 등에서 최소 4명 이상이 자살을 택했다. 아비드 라이프 미디어는 해킹 단체를 기소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50만 캐나다달러(약 4억 5천만 원)를 주겠다고 밝혔다.

'예수를 위한 팁' 또 화재...유대주서 3천달러 팁

미국 유대 주 솔트레이크 시내 한 주점에서 여종업원이 술값의 6배에 이르는 '예수를 위한 팁(Tips for Jesus)'을 받아 화재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저녁 대학풋볼 개막전에서 미시간대를 응원한 사람들이 새벽 1시에 술값 505달러에 팁 3000달러를 더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다. 이날 경기에서 미시간대 풋볼팀은 유대대 풋볼팀에 24-17로 패했다.

이런 사실은 종업원 브리엔 스노가 '예수를 위한 팁'이란 글씨가 써져진 영수증을 든 사진과 사연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예수를 위한 팁'은 고객의 팁을 주며 기쁨을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난하지만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을 위한 예수의 '깜짝 선물'이란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예수를 위한 팁'은 2013년 9월 미시간 주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3000달러의 팁을 주면서 처음 시작됐다. 이어 샌프란시스코, 뉴욕, 코네티컷, 일리노이, 애리조나에서도 수천 달러의 '예수를 위한 팁'이 잇따랐다. 최고액은 지난해 애리조나 레스토랑에서의 팁 1만 1000달러다.

스노는 솔트레이크트리뷰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이 영수증을 건네면서 '예수를 위한 팁'이라고 말했다"면서 "나는 구석에서 몇 분간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그녀는 "나와 남자친구는 빛을 갖고려고 매일 각자 2곳의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마치 '구호금'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주점 주인 제이슨 르카레는 "처음엔 믿지 못했다. 신용카드를 의심했다"면서 "19년간 술집을 하지만, 이처럼 많은 팁은 처음 봤다"고 놀라워했다.

스노의 사진에는 8만8000명 이상이 댓글을 올렸다. 미시간대 응원팀의 관대함을 칭찬하고 스노의 황제를 부러워하는 내용이 압도적이었다.

IS, 미국 주도 '십자군 동맹' 국가에 한국 포함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미국 주도의 동맹국 합류 국가들을 '십자군 동맹국'으로 지칭하며 이들 국가 가운데 하나로 한국을 포함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연합뉴스가 이날 입수한 IS의 온라인 영문용 선전 잡지 '다비크'(Dabiq) 11호에 따르면 IS는 '십자군 동맹'이란 기사에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십자군 동맹국에 공식적으로 포함된 62개 국가와 국제기구 명단에 한국을 올렸다. 이 기사에서 IS는 그 동맹국의 하나로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표기와 함께 그 옆 괄호 안에 '남한'(South Korea)을 별도로 표시했다.

IS는 한국 이외 61개국의 국가명과 국제기구 등의 이름을 알파벳 순으로 열거했다. 알바니아로 시작한 동맹국 명단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과 함께 유럽연합(EU)과 아랍연맹(AL) 등도 포함됐다.

IS는 "이러한 십자군 동맹 행태는 지금까지 세 번째"라며 "다양한 어떠한 작전도 칼리프 국가의 부활과 지속, 확장을 막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IS는 이어 "오히려 칼리프 국가는 단호한 대응으로 (이러한 동맹군에) 견뎌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IS는 "이라크와 러시아, 시리아도 자신의 조직에 맞서는 주요 십자군 동맹 회원들"이라고 덧붙였다. IS는 이번 명단을 미국 국무부 발표와 미국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했다고 전했다.

또한 IS는 이번 최신호 잡지에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자신의 조직 합류를 막는 행위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지구 상의 어떤 장소에서라도 십자군 시민을 살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IS는 그 예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LA)와 뉴욕, 미시

간 등지에서 테러를 감행하거나 이슬람권 국가에 주재하는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 등을 공격하는 방안을 들었다. 그러나 IS는 "히즈라(이주)를 실행할 수 없는 이슬람교도들이 적들에게 타격을 가할 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세계 각국에 있는 200여 개 공관에 대한 경비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전했다. IS의 선전기구인 '알하야트 미디어 센터'가 발간하는 다비크는 조직 대의 홍보용으로 1~2달에 한 차례발로 발행되며 IS의 주요 선전 매체 가운데 하나이다.

시리아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이름을 따온 다비크는 지난해 7월 창간됐다.

"미 역사를 바꾼 영웅들" 9·11테러 14주년 추모 물결

3천 명에 가까운 미국인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 14주년을 맞아 미 전역에서 추모 물결이 일고 있다.



기념일을 하루 앞둔 10일 펜실베이니아주 생크스빌에서 9·11테러 때 납치됐던 비행기 4대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항공 93편의 희생자를 기리는 '플라이트93 국립추모전시관'이 문을 열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당시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들은 미 의회 의사당을 공격하려던 테러범들과 맞서 싸워 생크스빌의 들판에 비행기를 추락시켜 더 큰 피해를 막았다.

전시관은 이 항공편 희생자 40명 전원의 사진을 걸고, 뉴저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이 항공편의 원래 경로를 가리키는 검은색 보도를 만들었다. 14년 전 신문 기사와 테러 당시 상황을 전하는 방송 화면, 탑승자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등도 전시됐다.

방문객은 이곳에 설치된 전화기를 통해 탑승객이 남편의 자동응답기에 녹음한 "단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줘"라는 메시지 등을 들을 수 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수백 명이 참석해 추모전시관 개관식에서 톰 울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탑승객과 승무원들을 기리며 "미국 역사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고, 셀리 주일 내무장관은 "그들은 현대의 영웅들"이라고 극찬했다.

전시관 건립사업에는 모두 2천600만 달러가 투입됐고, 종말 등 일부 시설물은 아직 공사 중이다. 기금 모금에는 빌 클린턴·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참여했다고 고든 펠트 유카추 대표가 전했다.

11일에는 뉴욕의 그라운드제로와 워싱턴의 국방부 본부(펜타곤) 등 미국 내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열렸다. 테러 14주년을 맞아 당시 백악관의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이메일도 새롭게 공개됐다.

뉴욕타임스(NYT)의 정보 공개 요청에 따라 '조지 W 부시 대통령 도서관·박물관'이 내놓은 2001년 9월 11일 백악관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평화롭던 일상이 국가비상사태로 급변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부시 전 대통령의 책사로 불리는 칼 로브는 그날 오전 5시37분 "모든 통신사 뉴스를 다 보내라"며 언론 보도를 쟁겼고, 짐 윌킨슨 보좌관은 6시59분 부시 전 대통령의 교육 관련 행사에 관한 주요 연설내용을 메일로 돌리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일과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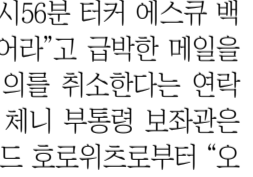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인 8시56분 터커 에스큐 백악관 공보국장장은 "CNN을 틀어라"고 급박한 메일을 보냈고, 그날 예정된 각종 회의를 취소한다는 연락이 오고갔다. 메리 매틸린 디 체니 부통령 보좌관은 보수 성향의 언론인인 데이비드 호로위츠로부터 "오늘은 진주만"(Today is Pearl Harbor)라는 메일을 받기도 했다.

직원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진지들의 메일이 그날 쏟아진 가운데 하비에르 솔라나 전 유럽연합(EU) 외교정책대표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내 모든 연대와 우정을, 하비에르"라고 보냈다.

이런 가운데 14주년에 맞춰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9·11 추모비에서 압력밥솥 폭탄을 터뜨리려던 플로리다 출신 20세 남성 조슈아 라인 골드버그가 체포됐다고 미 법무부가 이날 밝혔다.

"성경·예수 안 믿는다" 다윈 편지 경매에 나와

역사적 명저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으로 유명한 영국의 과학자 찰스 다윈(1809-1882)이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다고 직접 밝힌 편지가 경매에 나



왔다. 다윈은 자신의 종교적 견해를 공개하는 것을 매우 꺼렸으나,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자인 프랜시스 맥터모트라는 젊은 변호사와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소신을 명확히 밝혔다.

맥터모트는 자신이 다윈의 저서를 읽은 후에도 신약성서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싶다고 "신약성서를 믿느냐"는 질문에 예 혹은 아니라고 답해 달라고 다윈에게 요청했다. 그는 다윈으로부터 답변을 받더라도 그 내용을 신학 관련 지면에 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다윈은 바로 다음날인 1880년 11월 24일 그에게 비공개를 전제로 간단하고 명쾌한 답장을 보냈다.

다윈은 "성경이 신의 계시라고 믿지 아니하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고 믿지도 않는다는 점을 알려 드려야 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답장을 받은 맥터모트는 비공개 약속을 지켰고, 이 편지는 100년 넘게 학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다윈은 자신의 종교적 견해를 밝힌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이 편지를 쓰기 한 달 전에 무신론자이며 사회주의 활동가로 유명했던 에드워드 애블링(1849-1898)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종교에 대해서 글을 쓰는 일을 피하는 게 늘 나의 목표였다"며 "나는 자신의 영역을 과학으로 제한해왔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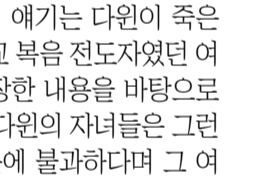
다윈은 1859년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을 출판해 인류 과학의 역사에 불멸의 이름을 남겼으며, 그 후부터 그가 종교를 믿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다윈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회심한 신을 믿게 됐다든 얘기가 널리 퍼져 있으나, 이 얘기는 다윈이 죽은 지 30여년 후인 1915년에 기독교 복음 전도자였던 여성이 미국의 성경 집회에서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신빙성은 전혀 없다. 다윈의 자녀들은 그런 얘기가 미국에서 날조된 헛소문이라고 불쾌하다며 그 여성은 다윈을 만나 본 적조차 없다고 말했다.

다윈이 친필로 쓰고 서명한 이 편지는 21일 뉴욕에서 열리는 '과학의 역사' 경매에서 나올 예정이다. 감정가는 7만~9만달러다.

이칸소주 10년만에 사형 재개...논란의 '독극물 주사' 사용

미국 아칸소 주가 독극물 주사의 인권침해 논란이 일 단락되자 10년 만에 사형 집행을 재개하기로 했다. 9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아사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는



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남성 8명의 형 집행일을 예고했다.

아칸소는 2005년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남부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주는 아칸소밖에 없다.

아칸소 주는 독극물 주사가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켜 법정공방에 휘말리자 사형집행을 보류한 상태였다. 아칸소 주에서 사형은 죄수를 마취시키고 나서 심장을 멈추게 하는 약물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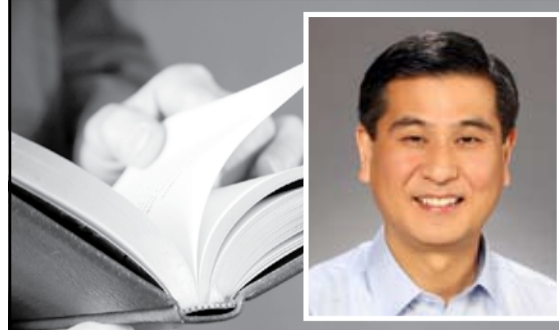
첫 단계에서 주사되는 마취제 미다졸람의 효과가 강력하지 않아 사형수가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숨지는 사례가 나오자 논란이 일어났다. 사형 집행 때 죄수가 바로 의식을 잃도록 더 강력한 마취제를 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클라호마 주 사형수 3명은 미다졸람을 사용한 사형 집행이 잔인한 처형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에 어긋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사형 집행 때 미다졸람을 사용하는 게 적법하다고 지난 6월 판결했다.

허친슨 주지사는 "솔직히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 법정공방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이 모두 마무리되고 최종판결까지 나오면서 법무장관이 사형 집행일을 잡으라고 권고했다"고 결과를 설명했다.

사형 집행 때 사용되는 약물의 제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소송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나, 사형집행이 연기되지는 않았다. 미국의 민간기구인 사형선고정보센터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 가운데 사형제를 폐지한 주는 19곳이다.

한국은 1997년 연쇄살인을 저지른 지존파 조직원들에게 사형을 집행한 뒤 18번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36)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교회 - 순교의 피, 영적 거름이 되어 (4)

정교분리(政教分離) 원칙이 있다. 국가와 종교의 역할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각각의 고유 권한과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국가는 현세적인 생활에 집중하고, 종교단체는 영적인 활동으로 영역을 제한하여 정치의 힘을 행사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정치인에게는 정치, 교회에게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교회의 일은 교회 관계자들에게 맡기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교회와 정치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절대적인 힘을 지녔거나 지니려하는 정치인일수록 정교분리의 원리를 비웃는다. 개인 또는 단체의 신앙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종교적 관용이 정치력의 응징을 방해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관심도 아울러 커졌다. 그들은 처음부터 로마제국의 안정과 번영에 중심을 두고 기독교를 이해하려 하였다. 로마 정부와 교회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황제의 마음에 달려있었다. 4세기 초까지 초대 교회가 로마

강한 힘을 자랑하던 로마가 점점 힘을 잃어가면서, 대내외적인 원인을 찾고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대부분의 로마 황제들은 네로황제처럼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 결국 나라가 어려워지고 쇠퇴하는 이유가

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였다.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적 관용을 무시한 로마 황제들이 약속된 율법처럼 느껴진다. 하드리아 황제(117-138) 이후의 2차 박해를 살펴보자. 하드리아는 선임자인 트라야 황제의 정책을 이어받았다. 즉 기독교

가 시작되자 기독교인들이 무척 당황하게 되었다. 그의 지성인의 모습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193-211)도 매우 유사한 태도를 취했다. 황제 숭배에 대해 큰 관심을 지니지 않았던 그는, 재임 초기에 기독교에 대하여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기독교를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면 태도를 바꾸었다. 그는 몬타누스파의 행위로부터 자극을 받았으며, 큰 세력으로 확장된 기독교를 위협적인 존재로 인정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에 대한 혐오를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려 하였다. 그는 신앙에 절하는 것을 강요하

으며,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을 꺾박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기간의 모든 로마 황제가 초대 교회를 꺾박한 것은 아니었다. 모든 로마 황제가 정치적 이였는데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그렇다. 그러나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꺾박할 수도, 꺾박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위에 열거한 황제들은 모두 정치적인 안목으로 교회를 꺾박하였다. 여기에는 하드리아 황제(117-138),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161-180),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193-211), 막시무스 황제(235-238)가 속한다. 그렇다면 그

로마황제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기독교를 이용, 꺾박 혹은 우호적 태도 보여 현대 교회도 정치분리 안돼...하나님 편에서 일할 정치인 선출위해 기도해야

황제들에 의해 끊임없는 꺾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다. 그들의 대부분이 성도들의 신앙에 위협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 이 시기에는 정교분리 또는 종교적 관용의 원칙이 초대 교회에 적용되지 않았으며, 그 이유가 로마 황제의 절대적인 권한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교인에게 벌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특별한 죄를 범한 사실에 근거하게 하였다. 기독교인들도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그는 예루살렘 성전 터에 신전을 세워 우상 제사를 강요하였는데, 신앙적인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국교를 어긴 범죄자로 취급하였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161-180)는 당대에 가장 뛰어난 지성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아, 각자가 맡은 일에 충실하면 이상적인 국가가 세워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초기에 지녔던 기독교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바꾸었다. 기독교를 미신으로 여기게 되었으며, 로마 제국 안에 일어나는 자연적 재해와 질병의 원인이 기독교 때문이라고 단정하였다. 잔인한 박해

게 하였으며, 이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비참하게 처형한 것이다. 막시무스 황제(235-238)는 처음부터 정치적인 상황을 자신의 권력에 교묘하게 이용하였다. 그는 지진으로 인하여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평상시 적대감을 지니고 있던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이다.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두 말살하도록 명령하는가 하면, 신전 제사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색출하여 처형하였다.

공간에 기록되지 않은 황제들의 태도는 어떠하였을까?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137-161)는 꺾박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보호하였다. 코모두스 황제(180-192)는 나라를 위한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 향락을 즐기는 일에 심취하였으며, 기독교인들을 친절하게 대하였다. 카라칼라 황제(211-217)는 로마의 국교를 유지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통제하려고 이렇다 할 법을 동원하지 않았다. 헬리오가발루스 황제(218-222)는 로마 국교를 가증하게 만들기 위하여 모든 종교를 통합하기 위하여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대하여 관용적 태도를 취하였다.

(14면으로 계속)

질문: 꺾박 받는 초대 교회의 상황을 통하여 정치와 교회의 관계에 관하여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1) 교회역사를 보면...

■ 상황의 변화

로마 황제들은 절대적인 힘을 지녔다. 그들이 지닌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대항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었다.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변증가들은 기독교가 로마에 해악을 끼치는 종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일에 전념하며 종교적 관용에 호소하였다. 기독교의 세력이 확장되고 성도의 수가 늘어나면서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역사자들은 일반적으로 트라야 황제(98-117)부터 데키우스 황제(249-251) 직전까지를 2차 박해로, 데키우스 황제부터 313년까지를 3차 박해로 분류한다. 물론 1차 박해는 네로로부터 시작된 것을 가리킨다. 2차는 기독교가 불법 종교로 지목 받은 결과 지역에 국한되었다면, 3차는 그 규모가 커져서 로마 제국 전체에 확산되어 있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막

■ 로마 황제의 꺾박

로마 황제들의 꺾박은 기독교를 없애고 약화시키는데 있었다. 그러나 황제에 따라 그 규모와 양상이 달랐다. 손쉽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매우 미온한 태도로, 위협적인 대상으로 여겨질 때에는 악랄하며 조직적인 말살정책을 펼쳤다. 그 뿐 아니라, 각 황제의 성격과 성향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였으며, 상황 변화에 따라 근본적인 정책을 바꾸는 일도 있었다.

로마 황제들은 정치인들이었다.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대하는 일이 전혀 새롭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

■ 로마 황제에 대한 선입견

지금까지 하드리아 황제 이후 2차 박해기간동안 통치하였던 로마 황제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가 지닌 로마 황제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관과 일치한다. 그들은 초대 교회 성도들을 정치적으로 대하였

다.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 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 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삼하 1:26, 새번역). 다윗과 요나단은 그들 사이의 우정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아름답고 순수한, 그리고 진정한 우정을 꽃피웠다.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는 언약까지 맺었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삼하 18:3, 새번역). 그렇다면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다윗과 요

(16면으로 계속)

정말 그랬을까?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17)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였는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수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까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요나단은 다윗의 처남이었다. 사울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었다. 그

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이미 왕으로 정해 놓으셨다. 그렇기에 두 사람은 왕의 자리를 놓고 다투어야 하는 불편한 관계였다. 그들의 우정이 아니었다면 왕권을 놓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여야만 했던 원수 사이였을 것이다.

사울이 몇 번씩이나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살아남 수 있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이었다.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의 각별한 우정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삼상 19:1).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

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리라'(삼상 18:1).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겹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삼상 18:3-4).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도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삼상 20:4).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므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삼상 20:17). 다윗과 요나단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였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털어놓았고 도움을 청했다. 요나단이 전사하자 이렇게 울면서 탄식했

다.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 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 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삼하 1:26, 새번역). 다윗과 요나단은 그들 사이의 우정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아름답고 순수한, 그리고 진정한 우정을 꽃피웠다.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는 언약까지 맺었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삼상 18:3, 새번역). 그렇다면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다윗과 요

나단은 정말 친구 사이였을까? 그들의 나이차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보자. 1)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17세쯤이었다. 2)그 후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 다니다가 서른이 되었을 때에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게 된다. 3)헤브론에서 5년 정도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고 그의 막내아들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 2년을 다스린 다(삼하 2:10). 그때 이스보셋의 나이는 40세였다. 4)장남인 요나단과 막내인 이스보셋 사이에는 적어도 3명의 형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대상 9:39).

(16면으로 계속)

조성근목사 기도성회 일정

조성근 목사 방송설교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튜브 조성근 목사 '세상을 이기는 지혜-솔로몬'
GoodTV 기독교방송: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차 검색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성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2015년 1월	5월	11월	2월	8월	4월
1월 19일 ~ 10월 22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기도성회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강화) 이진희목사(이철중목사) 평화의동산 기도회 (피종진목사) 11월 8일 ~ 13일 평화동인교회 남부시할 재치부흥회 과천교회 (주희우목사) 16일 ~ 1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5월 1일 ~ 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8일 ~ 17일 소망교회 (이정현목사) 21일 ~ 2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4일 ~ 27일 하늘비전교회 (오영택목사)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11월 1일 ~ 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8일 ~ 11일 성남성결교회 (이종우목사) 15일 ~ 15일 대림교회 (윤경민목사) 16일 ~ 19일 대림교회 (윤경민목사) 22일 ~ 22일 대림교회 (윤경민목사) 27일 ~ 29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30일 강서제일교회 (전종남목사)	2월 29일 ~ 7월 7일 LA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목사)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9월 12일 ~ 12월 15일 GST 신학성훈련 (34차) 시흥성결교회 (배만복목사) 16일 ~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23일 ~ 25일 동주교회 (양성우목사) 27일 백석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8월 31일 ~ 6월 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3일 ~ 12일 나사렛서경단 연합성회 17일 ~ 20일 GST 신학성훈련 (35차)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4월 6일 ~ 8일 유인 신세계교회 (문홍구목사) 13일 ~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0일 ~ 22일 인산 시립교회 (이성관목사) 23일 ~ 26일 김범대학교 대학원 재출 26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27일 ~ 29일 회평교회 (이재욱목사)

모라비안(Moravian)이라 불리는 사람들 (6)

박시경 박사
(그레이스신학대학원 한국프로그램 디렉터)



공식 통계에 의하면, 현재 한국인 선교사들은 약 25,000명에 이르고 전 세계 약 180개 국가에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약 400여년 전에 어두운 유럽교회를 깨우고, 신대륙 미국과 북극을 비롯해서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여러 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모라비안들의 발자취를 추적해 보면서, 지난 32

주소서.
Other refuge have I none,
Hangs my helpless soul on
Thee;
Leave, ah! leave me not alone,
Still support and comfort me.
구주지 하옵고 도와주심 비
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
호소서.
All my trust on Thee is

신 데이비드 니취만(David Nitschman:1695-1772)이 바로 그들입니다. 모라비안 형제들 중에서도 지극히 평범한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을 서인도제도에서 노역을 하고 있던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위해 스스로 노예로 팔려, 독일의 함부르크 항구에서 배를 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죽음의 땅을 향해 떠나는 그

경건의 출발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서 출발

웨슬리 형제, 풍랑 앞에서 흔들림 없는 모라비안들의 믿음에 충격 카리브해 1만3천여명 모라비안 선교사에게 세례...교회 아직 건재

년간 제가 속한 교단의 선인 선교사라는 저의 자부심이 심하게 초라해짐을 느꼈습니다.

앞선 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보잘 것 없는 체코/독일 출신들의 신앙인들은 영국으로 건너가 영국 개신교 교회를 깨웁니다. 그 당시 존 웨슬리(John Wesley),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 두 형제는, 요즘으로 말하면 빌리 그 래함보다 더 영향력 있는 복음 전 도자들이었습니다. 대서양을 사 이에 두고, 영국과 신대륙 미국에서 선포적인 부흥의 불길을 몰아 가던 부흥사들이었습니다.

1736년 1월 25일(주일),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찰스 웨슬리의 선상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그 당시 신대륙 미국(대영제국의 식민지였음)에 부흥집회를 위해 그의 형인 요한(John)과 함께 범선(뿔단배) Simmonds호를 타고 영국을 떠나 미국의 조지아 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그가 탄 배는 심한 풍랑을 만나 파선 일보직전까지 가면서 배 안의 승객 전원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공포에 빠졌습니다. 웨슬리 형제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거센 풍랑에 마스터(뿔단)가 부러지면서 뿔이 배의 갑판을 덮어버리자 배는 방향을 잃고 무서운 파도 속에 잠겨갑니다. 마침 그 배에는 몇몇 모라비안 가족들이 타고 있었는데, 무서운 풍랑 속에서도 저들은 놀라우리만 치 평온함을 보여줍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상황에서 그 배에 탔던 영국인 신자들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모라비안 형제들은 평온한 상태에서 시편으로 지어진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찰스 웨슬레는 묻습니다. “당신네들은 겁나지도 않나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겁나지 않아요”가 모라비안 형제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신네 아이들과 아내들도 겁나지 않아요?”라고 웨슬레가 묻자, 아주 온유한 모습으로 모라비안 형제들은 대답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아내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아요.”

무서운 풍랑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이 평온함에 웨슬레 형제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대해서 말합니다. 영국과 미국을 뒤흔드는 이 영적 지도자들은 미국에 도착한 후에 그 모라비안 형제들을 초청하여 깊은 신앙의 교제를 나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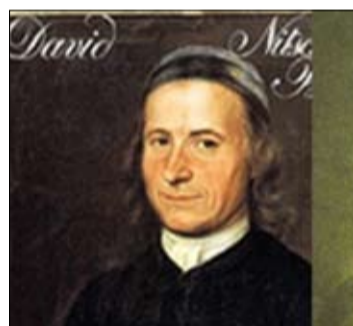
이 영적 거성인 찰스 웨슬리는 이 사건이 있은 후, 개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송시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이 일 때에”입니다. 2절 가사를 보면 웨슬리의 풍랑에 대한 끔찍한 경험과 자신의 믿음 없음을 대한 고백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 피할 데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stayed, All my help from Thee I bring;

Cover my defenseless head with the shadow of Thy wing.
이 풍랑사건이 두 신앙의 거장이었던 찰스 웨슬리와 요한 웨슬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 저들에게 “제2의 회심의 사건”이라 불리어졌고, 곧 이어서 그것은 영국의 대부흥운동의 촉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국의 대부흥운동은 미국의 대각성운동의 선구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물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미국의 대각성운동은 후일 먼 태평양 건너 ‘숨은 은자의 나라, 조선 땅’에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참 불품없어 보였던 체코출신/독일출신의 모라비안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놀라기만 합니다. 그 당시 “



데이비드 니취만과 요한 레온하르트 도버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자랑하던 대영제국(United Kingdom)이 국제적인 존재감이 상당히 떨어진 체코/독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을지에 대해 충분히 상상을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더



1742년 준공된 펜셀베니아 모라비안 중양교회 측면모습

욱 놀라울 따름입니다. 모라비안 선교에 대해 말할 때, 이 두 사람을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니취만과 요한 레온하르트 도버

토기장이 출신 요한 레온하르트 도버(Johan Leonhard Dober:1706-1766)와 목수 출

들을 위해, 가족들과 신앙의 동지들은 함부르크 항구에서 손에 손을 잡고 눈물의 작별을 합니다. 그렇다고 대성통곡의 작별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신 어린양에게 그의 회생에 대한 보상이 있으라! May the Lamb that was slain receive the reward of His suffering!”이라는 찬송을 합창하면서 슬픔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저들을 전송합니다.

지금은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카리비안 휴양지가 바로 St. Croix,와 St. Thomas이지만, 400여년 전 그 당시에는 이 두 섬이 덴마크의 식민지로 오지 중 오지였습니다.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도착한 이들 섬에는 영국 노예상들, 덴마크 농장주들이 흑인노예를 잔혹하게 다루던, 백인들에게는 죽음의 섬과도 같았습니다. 이 섬에 도착한 백인 노예를 처음 대 한 덴마크 농장주는 적잖게 놀랐을 겁니다.

저들은 최소한의 허름한 거처를 제공받고, 노예들과 함께 농장에서 힘든 노역을 감당하면서 흑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틈틈이 자신들의 손재주 (토기를 굽는 일, 목공일 등)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말입니다. 후일 저들의 뒤를 이어 더 많은 모라비안 젊은이들이 카리브해 여러 섬들을 서 비슷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St. Croix, St. Thomas, St. John, Jamaica, Antigua, Barbados, St. Kitts 같은 섬나라에는 무려 13,000여명의 현지인들이 모라비안 선교사들에 의해 세례를 받았다고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섬들의 이름이 웬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이 섬들은 바로 현재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크루즈 휴양지로 유명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현재 그런 휴양지에도 모라비안 교회들이 건재하며

지난 400여년 동안 복음을 간직하면서 신앙을 지켜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연재 제 1화에서 언급한 대로, 지난 5월 메모리얼데이에 미국에서 제일 큰 모라비안 교회(Bethlehem, Pennsylvania)를 방문했을 때, 가벼운 충격을 받은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Bethlehem시 중심부에 있는 그 교회는 좌석수 1500석에 웅장한 석조 건물이었습니다. 교회의 수석 장

로의 설명에 의하면, 그 교회가 지어졌을 당시 베들레헴시의 전체 인구가 1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놀라움에 제가 거듭 확인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의 전체 인구 1000명에 1500석의 교회를 지었던 사람들이 바로 미국의 모라비안 후예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 팽창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지었다는 것이 그 수석 장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던 주일아침 예배에 약 250명 정도의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고 대부분 백인 장년, 노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흑인 목사님이었습니다. 매우 열정적으로 설교했고, 회중석에 앉아있던 백인 중산층으로 보이는 성도들은 많은 은혜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카리비안 휴양지가 바로 St. Croix,와 St. Thomas이지만, 400여년 전 그 당시에는 이 두 섬이 덴마크의 식민지로 오지 중 오지였습니다.

모라비안 교회를 대표하는 그 백인 교회에서 흑인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 뿐이었습니다. 예배 후, 친교시간에 그 설교자와 담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은, 자신은 자마이카 출신이며, 가족이 5대째 자마이카에 있는 모라비안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년 전에 현재 교회 당회로부터 정식으로 청빙을 받아 자마이카 출신 흑인 목사로서 미국의 백인 모라비안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상황으로 바꾸어 말해볼까요?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자신들이 파파아뉴기니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은 그 선교사에 의해 기독교 개종한 파파아뉴기니 출신 흑인 목사를 강남의 대형교회 담임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의 긴 연재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모라비안들의 삶과 신앙의 궤적을 추적하면서, ‘경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보수적인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 장로교 미션스쿨을 6년 다녔고, 심지어 대학에서도 학교와 교회가 저의 생활의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경건’은 주일성수, 공예배 출석, 심일조, 새벽기도, 전도, 혹은 선교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것도 포함됩니다. 물론 구약에서의 경건(미6:8)과 신약에서의 경건(약1:27)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체코의 존 후스의 후예들이 모라비안들의 삶과 신앙을 보면서, 경건의 출발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상황에 따라 휩쓸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나오고, 우리 자신의 개인적 성공이나 이익보다는 복음이 보여주는 삶이 우선시되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대로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이 경건주의라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끈으로 400여년 전의 독일 경건주의 신앙의 전형이었던 독일의 모라비안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현재의 한국교회를 보면서 모라비안들의 경건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이메일: parkss@grace.edu (끝)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외골수 믿음으로 우뚝 선 갈렙

갈렙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중 몇 안되는 절대 믿음으로 산 대표 중의 대표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 많은 이스라엘민족을 건넜으며 뒤따라오던 이집트 사람들이 갈라진 홍해가 다시 합해지며 수장되는 기막힌 기적을 체험하고 그 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곧 먹을 것 마실 것이 전혀 없는 광야 생존의 위기가 닥치니 기적은 완전히 잊고 불안 공포에 모세에게 사달질하며 거세게 대드는 무리과 함께 모든 절박한 위기에 갈렙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며 나 죽겠다 난리건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코 앞의 위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 결국 젓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입성하는 영광을 얻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위에는 문제가 산적해 있고 믿는자라해서 문제를 없애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시험을 거치느라 오히려 더 많이 덮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크더라도 해결 능력이 크면 이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직 살 길만을 찾으면 살 길을 준비해놓으신 자상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낙자손이 아무리 크고 성이 견고해도 저들은 우리의 밤이다, 이 길 수있다고 외치다가 갈렙은 몰매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다수의 원칙에 따라 결국 젓과 꿀이 가난한 땅을 코 앞에 두고 40년을 돌아 돌아 갈렙이나 85세가 되어서야 가난한 정복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물 던지며 보파리 내뿜었다고 사납게 흔들어대는 사납쟁이들속에서 어찌 그 마음인들 흔들리는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한결같이 끊임없이 터지는 문제의 홍수가운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저들을 필히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꾸준히 말없이 모세곁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대표가 되어도 시샘은 커녕 오히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모세에게 순종하듯 같은 또래의 여호수아를 앞장서 잘 받들었습니다. 자기의 보조자의 자리를 하나님에 정하신 분복으로 철저히 충성합니다. 2인자로 성공한 위대한 사명자 갈렙입니다. 자신이 공을 많이 세웠으니 옥토 땅을 주시요 해도 뭐라 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아낙자손이 있는 견고한 성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께 함께하시면 능히 점령할 것이라며 눈에 보이기에 열악한 곳을 기업으로 청합니다. 어찌 85세 노인네와 40세의 기력이 갈겠나미는 약속대로 받은 헤브론산지의 거인 아낙자손을 쳐 몰아 내었습니다. 딸 악사를 아우의 아들인 웃니엘에게 시집보내고 후에 웃니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는 가문의 영광의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갈렙과 같이 온갖 풍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는 못해 때때로 넘어집니다. 사나 죽으나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을 앞세워 따라나선 사명자의 길입니다. 허다한 문제 가운데서 휩쓸리지않도록 꼭 잡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만큼이라도 심으시고 키워오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앞에 서는 그 날까지 뒤에서 칭찬하는 분복을 기쁨으로 누리렵니다. 주께서 계속하여 개척의 선봉한 환경으로 밀어 넣으실때 힘겨워말고 갈렙과 같이 세월이 갈수록 강건한 믿음의 용사로 내게 주신 분복의 거친 땅에 대항하는 불신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 님나라다운 곳으로 바꾸어 놓는 성령행전을 일구어내도록 성령님 따라 보장된 승리 사역을 맺히게하소서~~ 한 발 한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갑시다.

초지일관 요지부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해드리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기를 가슴에 품고 바울에게 무릎꿇지않은 온 세상에 흩어 숨겨놓은 갈렙들이 외골수 믿음으로 요동치않고 열전하게하소서.

(5면에서 계속)

오늘날 사람들은 종종 비공식적인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자는 이혼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자신의 믿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자는 자신을 결혼생활의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녀는 자신이 국가에 이혼서류를 신청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녀는 이혼을 주도하는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해서 이혼을 유발시킨 것은 믿지 않는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믿는 배우자는 단순히 그 상황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녀가 이혼을 신청할 때 국가에 그 상태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자신이 결혼서약을 지키고 있다고 신뢰할 만한 주장을 하는지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 주장이 신체나 언어폭력, 배우자 이외의 사람들과 성적 갈등, 필요를 공급하지 않음, 등으로 인해 되는 신뢰할 수 없을 때 교회는 원 결혼은 무효이며 당사자들은 재혼할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가능한 해결책이 실패했을 때에만 이혼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7) 로마서 7장 1-3절

바울은 결혼법이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만 구속력이 있음을 밝힙니다. 배우자가 죽으면 남은 배우자는 결혼법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반적인 원리를 재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아내의 결혼의 구속에서 자유하였으므로 재혼이 허락되며, 그것은 간음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배우자의 사망은 배우자가 간음을 범한 경우와 믿음이 다른 배우자가 같이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와 함께 재혼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또 하나의 경우로 제시됩니다.

결혼은 본질에 있어서 풀이 한 몸이 되는 관계이며 구속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며 그 지속성에 있어서 영구적인 것이므로 사람이 자의적으로 깨뜨려서는 안됩니다. 배우자가 간음을 범한 경우에 남은 배우자는 이혼한 후에 재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은 배우자가 간음을 범한 배우자를 용서하고 간음을 범한 배우자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에는 결혼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용망한 고백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한 경우에 결혼 관계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본 후에 이 노력이 실패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 이외에 이혼하는 것은 결혼관계를 깨뜨리는 죄이며, 이혼 후에 재혼하는 것 역시 간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메일: yoonsuklee@hotmail.com

One Body in Christ 주제로

26-27일, 제 33회 HYM 청년연합집회

HYM(대표 더글러스킴 선교사)가 주최하는 제33회 HYM 청년연합집회가 오는 26일(토)과 27일(주) 양일간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킹덤드림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집회의 주제는 'One Body in Christ'(엡4:1-16).



제33회 HYM청년연합집회가 오는 26일과 27일 남가주사랑의교회 KDC에서 열린다

더글러스킴 대표는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것을 믿으며 기대한다. 주님의 자녀 된 우리 모두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도 사도도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회자와 교사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는 사명을 받았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 도우며,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을 이루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되어져서 One Body in Christ를 이루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모든 교회와 공동체는 하나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선교지, 미국에 수많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청년들이 불과 같이 일어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HYM 스태프 김초혜 자매는 "이번 집회를 통해 각 교회 청년공동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집회의 강사는 김성환 목사(가디나장로교회)와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이며 김 목사가 토요일 저녁집회를 그리고 노 목사가 주일저녁 집회에 말씀으로 도전을 주게 된다. 또한 토요일 오후 4시 글로벌커피브레이크 대표인 백은실 집사가 강사로 나서 세미나를 갖게 된다.

▲문의: (714)393-5135 (박준호 기자)

교역자 청빙

캔사스주 오버랜드 파크에 위치한 캔사스선교교회(담임 이영기 목사)가 파트타임 부교역자를 청빙한다. 신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로 한어 청년부 사역과 찬양팀 인도, 미디어 사역 등을 담당한다.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lee.youngki@gmail.com

▲문의: (913)648-9191 www.kansasmission.org

투고 시

고운 향아리에 담겨질 9월의 행복 축제



현태식 장로 | 로스펠리츠연합장로교회

강낭콩 영글고
향기로운 구절초
이름 없는 무덤가에도 향기로 감싸는
9월 가을 문턱,
로스펠리츠 산자락에 다가와
언어와 생활, 서로 다른 삶의 모습들
남남들이 모여
같은 하늘 아버지 만나 뵙기 원하며
진실된 사랑, 진실도 입술로 드러지는 찬양의 한자리

세상길 감당 할 수 있는
하늘 길 따라 사는 순례자 길손들
아프게 지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삶 살이
살아있어 감사하며 서로를 사랑할 때
은혜의 무지개 눈 가에 담기는
하늘나라 고운 꿈 보여

사랑과 기쁨의 찬양이
가을 풀 썩 타는 내음 따라 하늘 길로 올라
하늘 아버지께 영광되어 드러지며
Holly wood가 Holy wood로 변화되는
하늘의 섭리 보여 지는
9월의 행복축제 되어

보이지 않는 영생의 분향을
꿈으로도 그리워하는 우리들이 삶살이
첫 열매 따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초가을에
사랑의 마음이 부메랑 되어
고운마음,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은
고운 향아리에 가득 담아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축제가 되게 하소서



OC 교협 주최 원로 목사님 부부 초청 일일 야외수련회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미주합동대학교 신학대학원 2015년도 가을학기 개강예배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OC교협, 원로목사부부 초청 일일야외수련회 60여명 참석, 실로암 유허온천서 즐거운 시간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기동 목사, 이하OC교협)은 지난 3일 오렌지카운티 원로목사님 부부들을 초청해 일일 야외 수련회를 개최했다.

평생 목회에 헌신하고 은퇴한 원로목사 부부들을 위로하는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야외 수련회는 엘시노 소재 실로암 유허온천에서 60여명이 모였다.

엘시노 실로암 온천에 도착한 일행은 OC교협 대외관계 부회장 윤덕근 목사의 사회로 여성목회분과 위원장 이선자 목사의 기도가 있은 후 OC교협 회장 김기동 목사가 빌립서 1장 18절을 본문으로 '복음이 중심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OC 원로목사회 회장 최승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식사는 주님의제자교회(이

선자 목사)에서 준비했으며 오후시간에는 OC교협 총무 신현철 목사의 사회로 레크리에이션, 장기 자랑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OC원로목사회 회장 최승구 목사는 "오래간만에 온천에 와서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 모두들 기쁘고 즐거웠다. OC교협에서 원로목사님들을 위해 좋은 행사를 준비해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기동 교협회장은 "은퇴하신 원로목사님 부부들을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즐겁게 보내시는 모습을 볼 때에 보람을 느꼈으며 자주 이런 기회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OC교회협의회)

'여러분의 행위를 조사하라'

미주합동신대 2015년도 가을학기 개강예배

미주합동대학교 신학대학원(총장 이종식 박사) 2015년도 가을학기 개강예배가 8일 오전 11시 LA 연약교회(담임 고귀남 목사)에서 열렸다.

총무처장 박희구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처장 전용성 목사가 작년도 이사장 최순길 목사가 '여러분의 행위를 조사하라'(에 3:33-5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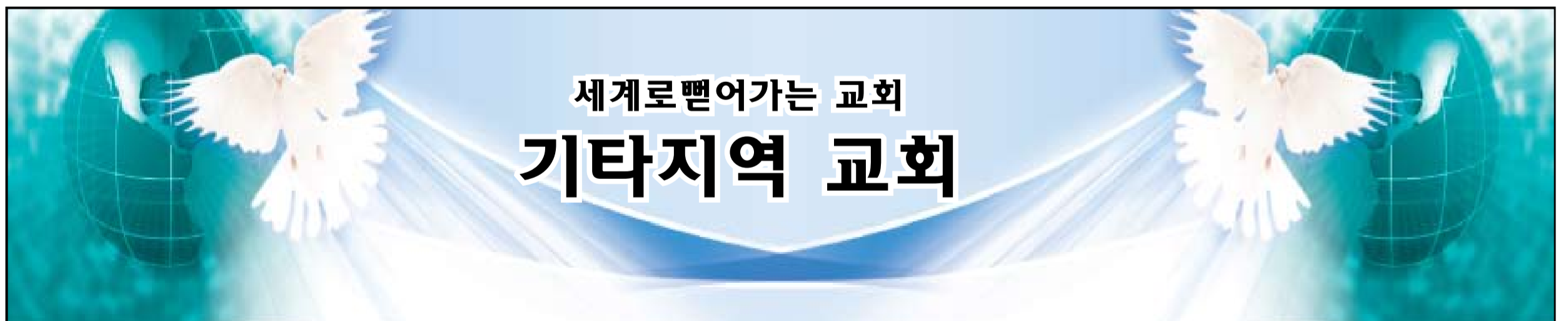
최순길 목사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부한다는 것"이라 말한 뒤 "하나님말씀을 바로알고 전해야 하지만 목회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한다. 자기 자신이 바로 설 때 하나

님이 원하시는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회자인 우리자신부터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철저히 내 자신의 행위 조사하고 회개하고 해결 받은 후 학생을 가르치고 목회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생을 배출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순진하고 순진한 주의 종 되어 순수하고 순진한 신학생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예장미주합동총회 서기 김광석 목사가 축사했으며, 증경총회장 정갑식 목사(해돋는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토요일: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Las Vegas, NV 89146	덴버에담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토) 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www.kopcschurch.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891, 267-471-7777 Fax: (610)222-08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www.ijhs.org	벤엘교회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부예배(영): 오후 1:45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원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부예배: 오전 11:00 유치, 유년: 오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ingham, MA 019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opcschurch.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책: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ijhs.org	앵커리지델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스델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 (915)755-1490, 사책: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aleti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ij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mcc.org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부예배: 오후 2:00 청년예배: 오후 7: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동부교계 게시판



cbsn합창단 창단연주회

뉴욕기독교방송 cbsn(대표 문석진 목사) 합창단(지휘 장효중) 창단 연주회가 9월 27일(주) 오후 6시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열린다. 소프라노 박진원, 알토 백성화, 테너 배정호, 베이스 정도진 등이 특별 출연한다.
▲문의: (646)915-6034

추석맞이 효도잔치

뉴욕병원선교회(회장 김영환 목사)가 주최하는 추석맞이 효도잔치가 9월 26일(토) 오후 2시부터 뉴욕 롱아일랜드 한국요양원에서 열린다. 이날 특별공연으로 국악과 사물놀이, 색서폰 연주, 부채춤, 장고춤 외 기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선교회 측은 후원자를 찾고 있다.
▲문의: (914)393-1450

'죽음 준비학교' 개강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죽음 준비학교'가 9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7주만에 걸쳐 매주 월요일 오전에 열린다. △제1단원 나의 삶, 나의 꿈: 나의 어제와 오늘/나의 꿈, 아름다운 노후/나의 삶, 그리고 죽음 △제2단원 사랑, 그리고 용서와 화해: 분노 다루기/용서와 화해/사랑의 관계 기술 △제3단원 마지막 여행을 위한 준비: 유언장과 유산정리/Living Will, 사전의료지시서, 나의 장례식/마지막 여행 가이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문의: (201)242-4422

제 32회 탈북난민 돕기 음악회

제 32회 탈북난민 돕기 음악회가 10월 4일(주) 오후 6시 JHS198 강당에서 열린다. 공연에는 소프라노 박진원, 성이현, 심규연, 메조소프라노 김효나, 테너 김성욱, 서병선, 바리톤 유영광, 피아노 김해은과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용, 뉴욕그레이스여성합창단(지휘 서혜영)이 특별출연 한다. 뉴욕예술가곡연구회와 두리하나USA가 주최한다. 티켓은 15달러.
▲문의: (212)567-6919, (718)551-7186, 353-4411

“공동체 기관 가족 개인 함께 노력해야” 2015년 세계자살예방의날 기념식 및 공개강좌

2015년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및 제11차 공개강좌가 9월 10일 오후 7시 30분 뉴욕한인봉사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조이풀합창단(단장 방은숙, 지휘 최현욱)의 특송으로 시작된 기념식 개회사에서 김영호 목사(미동부생명명의전화 대표)는 “자살은 개인, 가족, 봉사기관, 국가와 전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풀어가야 할 공동 과제이므로, 세계자살예방의 날 우리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 1) 생명 존중과 소중함 재인식하고 2) 자살문제 현황과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3) 자살예방, 대책, 계몽에 박차를 가하고 4) 자살기도자와 유가족 위로와 배려, 5) 자살을 감소시키는 판관색 촛불을 오후 8시에 전 세계인이 동시에 켜 주위의 힘을 아끼는 자들과 그들을 돕는 단체에 힘을 실어주어야 함을 다짐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행사취지를 밝혔다 이날 기념사는 김석주 전 뉴욕한

인회장, 양민석 목사가 맡았다. 자살예방을 위한 세미나는 정인국 박사(소아과 전문의)가 “정신건강배려는 유아기와 심대 때부터—부모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주제로 강연했으며, 이수일 박사(Nyack대 상담대학원 교수)는 각종 중독과 자살의 관계가 깊음을 설명하고, 권오준 박사(Divine힐링센터 원장)는 “분노와 스트레스 조절과 자-타살예방” 제목으로 강의했다. 강연 후 진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저 죽으려는 자 우리가 살릴 수 있겠네”란 노래의 뜻을 새기며 합창하고 생명명의전화 기획위원 김정국 목사의 축복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이날 미동부생명의전화 발전을 위해 참석자들이 즉석에서 모은 후원금 1,189달러를 전달하기도 했다. 후원문의는 (718)213-8645. (기사제공: 미동부생명의전화)

총회 전달 안건 3개 모두 거부

KAPC 뉴욕노회 제 77회 정기노회



KAPC 뉴욕노회 제 77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가 뉴욕을 방문한 한국기아대책 유원식 신임회장장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기아대책 유원식 신임회장 뉴욕 방문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에 남미 등 협력후원 다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전희수 목사)가 지난 14일 한국기아대책 신임회장 유원식 장로 일행의 뉴욕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을 가졌다. 저녁 6시 플러스 금강산 식당에서 가진 모임에서 유원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IT산업에 종사한 전 문경영인으로서 대기업에 종사하다가 인생의 후반전에 보람 있는 일을 위해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한국기아대책 회장으로 세워주셨다”고 말했다.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6개월의 휴식을 가진 후 지난 3월 취임한 유원회장은 “특별히 기아대책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NGO가 아닌 ‘떡과 복음’이라는 미션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예수그리스도 주권 안에서 투명성과 순수성의 뿌리를 내려 1)현장중심경영 2)자율경영 3)감동경영의 3.0 DNA 경영 전략과제”도 소개했다. 한국기아대책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사61:1)이라는 표어로 2015년 사역을 시작했으며, 이번 모임을 통해 26년 역사를 가진 한국기아대책과 8년의 역사를 가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가

서로 연합하며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한국기아대책은 한국에서 거리가 먼 남미지역과 북한지역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가 주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기아대책은 1989년 국내최초로 후원하는 NGO로 설립돼 현재 전 세계 60여 개국에 570여명의 기아봉사단(선교사)들이 미션을 수행하고 있으며, 14만명이 후원하고 있다. 또 14개 본부와 156지역 후원 이사회 등 연 1천4백12억원 규모로 각종 개발사업과 복지사업, 긴급구호활동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2007년 설립됐으며 해외아동결연사업(Child Development Program)에 일차적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6개국 130명의 아동들이 결연돼 있다.

이날 마지막 시간에는 지난 8월 페루단기선교 현장사진을 영상으로 보여 감동과 기쁨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영수 목사) 뉴욕노회(노회장 이영상 목사) 제 77회 정기노회가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렸다. 뉴욕노회는 이날 총회로부터 건의된 안건 1)담임목사 정년 70세 2)교회 재산권 총회로 이전 3)전교회적으로 개혁개정 성경 사용 등 3건의 안건은 각 지교회에서 논의의 결의해 차기 모임에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또 서기 김해근 목사의 노회 탈퇴에 따라 홍춘식 부서기를 서기로 결의했다. 또 전도부가 미자립교회 후원으로 뉴욕새벽별장로교회(담임 정기태 목사)에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코트디부르 황익진 선교사에서 즉석에서 후원금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다.

개회예배는 이영상 목사 인도로 기도 이종원 목사, 성경봉독 박종원 목사, 설교 이영상 목사, 성찬예식집례 황경일 목사, 축도 손한권 목사, 광고 홍춘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영상 목사는 “찾는 자와 숨는 자”(눅15:1-1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의 잃어버린 양은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다가 이탈했지만

주인은 찾아야하는 양이다. 또 잃어버린 귀중한 드라크마는 주인의 부주의로 잃어버렸다. 어쩌든 둘 다 찾아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야 할 사명을 주셨다. 어릴 적 했던 슬래잡기처럼 슬래가 모두를 찾았을 때 끝이 난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숨어있는 영혼,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는 사명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2부 회무처리 서기보고에 의하면 장로고시 청원서 접수자는 퀸즈장로교회 정길표, 송동률 집사, 부르크린제일교회 손경동 집사, 목사고시 청원서는 뉴욕주립교회 문영은 전도사, 큰기쁨교회 방정훈 전도사, 선의교회 김재삼 전도사가 접수했다. 또 뉴욕주립교회 박병섭, 김대진 전도사가 목사후보고시 청원서를 접수했으며 선의교회 이금순 집사가 전도사고시 청원서를 접수했다. 이외에 김해근 목사와 은누리영광교회 노회를 탈퇴했으며 박대원 목사(뉴욕은혜로운교회 담임)가 로스앤젤레스노회로 이명 됐고, 문영은 전도사(뉴욕주립교회)가 노회에서 뉴욕노회로 이명이 하락됐다. 뉴욕노회는 뉴욕시찰과 뉴욕동시찰, 뉴욕서시찰 3개 시찰 하에 20개 교회가 소속돼 있으며 43명의 목사와 6명의 장로총대 등 총 49명이 가입돼 있다.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장신 개강 영성회 둘째날 김경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시대를 보라” ...동부개혁장신 개강 부흥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가 개강에 앞서 지난 8일부터 사흘간 부흥회를 가졌다. “시대를 보라”라는 주제로 강사는 김경진 목사(토론토 빌라델비아교회 담임). 강기봉 학생처장 인도로 시작된 첫날 부흥회에서 김경진 목사는 시편 2장 1-12절을 본문으로 “시대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기도한 동문회장 허윤준 목사는 동문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장영춘 학장이 장학증서와 교환패

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9일 김경진 목사는 “누구의 자식인가”(왕상3:16-28), 셋째 날 10일에는 “혼인잔치의 기적”(요 2:1-11)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사흘간 신동기 학우, 이재환 학우가 특주와 특송을 했으며 둘째날에는 퀸즈장로교회 찬양대가 특별한 앙을 했다. 동 신학교는 10일부터 수업을 시작했으며 오는 12월 3일 종강한다. (유원정 기자)



뉴욕전도대학교 2015년 가을학기 개강예배 학장 취임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학장 오태환 목사 취임예배 겸해

뉴욕전도대학교 2015년 가을학기 개강예배

뉴욕전도대학교 2015년 가을학기 개강예배 학장 취임예배가 15일 오전 10시30분 뉴욕만나교회당에서 열렸다. 이사장 및 학장으로 취임하는 오태환 목사는 “전도협의회 회장을 다시 맡았는데 또 이번에 학장도 맡게 됐다. 전도협의회나 전도대학교는 뉴욕에 꼭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이다. 소수의 인원이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새로운 강사들을 발굴하며 후원자들도 영입해서 임기동안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오태환 목사는 “현재 이사장직도 비어있는 상태”라며, 이사장 영입에

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예배는 이지용 목사 인도로 기도 박성원 목사, 찬양 뉴호프찬양단, 설교 장재용 목사, 결단의 기도, 봉헌찬송 김영환 집사, 봉헌기도 김희숙 목사, 이사장&학장 인사말, 축사 권캐더린 목사, 광고 박차숙 전도사, 축도 유상열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재용 목사는 “소명의 발자취”(막1:14-30, 35-4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기독교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힘과 갈망”이라며 “계시록에서 주님이 일곱 교회에 동일하게 주신 메

시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목사는 “전도의 내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면 회복되고 들으면 산다. 성경은 이 2가지 뿐이다. 전도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 삶의 모범을 통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전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회당 안에서 사역(21절)과 회당 밖에서의 사역(29절)으로 나뉜다.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라. 전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며, “가물거리는 촛불이 되어왔다가 이글거리는 촛불이 되어간다”고 했던 허드슨 테일러의 말을 인용하며 전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욕전도대학교는 12월 15일 종강예배까지 매주 화요일 강의가 진행되며, 10월 6일과 13일에는 강유형 목사를 강사로 하는 새가족 정착 컨퍼런스도 열린다. 또 10월 20일에는 소풍이 예정돼 있다. 강의는 이재봉(신구약), 오태환(영성), 이지용(전도), 박준열(선교), 김영철(성령), 이문자(찬양), 안승백(구제), 김희복(기도), 차철희(신약), 이종명(이단), 이승진(구약), 현영갑(성령), 김영환(기도), 허윤준(하나님나라), 지인식(성령충만), 임용수(전도), 김요셉 목사 등이 맡는다. (유원정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DYNAMICS 다이내믹스
MARTIAL ADRENALINE ZONE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배너
교회배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업)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미주 목회자를 위한 특별 성경세미나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 강사 라흥채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백지영 목사) 주최 미주 목회자를 위한 특별 성경세미나가 14일 오전 10시 세계야가페선교회(담임 김요한 목사)에서 열렸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라흥채 목사(뉴욕제자들과교회 담임)가 강사로 나서 열띤 강의를 했다. 라 목사는 "인간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고 언급한 뒤 "하나

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매일같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고 말했다. 그는 "진화론은 인간이 만든 법이다. 반면 창조론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이다. 세상은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법칙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 즉 세상의 법으로 목회해서는 안 되며 영적인 신령한 감동과 감화가 될 때 주님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

역자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동신교회에서 열린 서중노회 여성교회 연합회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 및 성가의 밤에서 남가주동신교회 여성성가대가 찬양하고 있다

KPCA 서중노회 여성교회연합회 창립14주년 기념예배 및 성가의 밤

해외한인장로회(KPCA) 서중노회(노회장 심상래 목사) 여성교회 연합회(회장대리 황성연 권사) 창립 14주년기념 예배 및 성가의 밤이 13일 오후 5시 남가주동신교회(담임 백정우 목사)에서 열렸다. 여성교회 연합회 회장대리 황성연 권사는 인사말에서 "서중노회 여성교회 창립 14주년을 기념하며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며, "여성교회는 각 지교회가 하기 힘든 일들을 함께 협력해 선을 이루는, 이 시대의 보다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여성교회 연합회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김성경 집사(남가주동신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성가의 밤은 올리브장로교회(지휘 김성숙), 흘러튼장로교회(지휘 김미옥), 한우리교회(지휘 권영대), 호산나교회(지휘 박종하), 한미음교회(지휘 권혜연), 흘러튼영락교회(지휘 김혜령), 선한정

지교회(지휘 흥정원), 엘피스장로교회(지휘 신은주) 등 9개 교회가 참여했으며, 남가주동신교회 남성중장단과 호산나교회 김영주 권사가 특별출연했다. 특히 김영주 권사의 리코더와 하모니카 연주는 이날 성가의 밤에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성가의 밤에 앞서 드린 기념예배는 황성연 부회장의 사회로 선교부장 한희숙 권사(엘피스장로교회) 기도, 재정부장 안혜영 권사(한우리교회) 성경봉독, 남가주동신교회 연합성가대 찬양에 이어 백정우 목사가 '기도하며 찬송하매'(행 16:19-2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김명숙 권사(남가주동신교회)가 헌금송을 불렀다.

특히 이날 생명의 전화 바다위목사와 기드온동족선교회 박상원 목사에게 선교비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 미주 목회자를 위한 특별 성경세미나가 세계야가페선교회에서 열렸다



제85회 KPCA서중노회에서 신임노회장 김경진 목사가 신구교제시간에서 노회장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새 노회장에 김경진 목사 선출 KPCA 서중노회 제85회 정기노회

해외한인장로회(KPCA) 서중노회(노회장 임종혁 목사) 제85회 정기노회가 10일 오전 9시 나성서남교회(담임 김광철 목사)에서 열려 새 노회장에 김경진 목사(나성영락교회)를 선출했다.

김경진 목사는 "부족한 저를 노회장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하다. 서기에서 노회장으로 된 것이 합당치 않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우신 줄 믿는다. 서노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종혁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박영석 장로가 기도했으며 임종혁 목사가 '회복과 사명'(대상16:7-1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김광철 목사 집례로 성찬예식을 가졌으며 안덕원 목사가 축도했다.

이어 열린 회의에서 임원선거를 통해 김경진 목사를 노회장에, 김광철 목사를 목사부노회장, 그리고 김신호 장로를 장로부노회장에 선

출했다. 또 직전 노회장 임종혁 목사가 김수신 목사(53회 노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끝이 신임 노회장 김경진 목사가 임임 노회장 임종혁 목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오후시간에는 목사안수식을 갖고 나성영락교회 이한일 씨 등 7명이 목사안수를 받았다. 다음은 85회 정기노회에서 선출된 노회위원 명단이다.

△노회장: 김경진 목사(나성영락교회) △사무부노회장: 김광철 목사(나성서남교회) △장로부노회장: 김신호 장로(남가주명성교회) △서기: 김동원 목사(힐리웃호순장로교회) △부서기: 장요한 목사(선한이웃교회) △회록서기: 박경희 목사(남가주반석교회) △부회록서기: 이현동 목사(나성영락교회) △회계: 이선구 장로(갈보리민음교회) △부회계: 맹경호 장로(주님세운교회)

(박준호 기자)

더락한인교회 설립예배...미전역 13개 영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회중 이어 4번째

더락(The Rock)한인교회(담임 박정기 목사) 설립예배가 13일 오후 6시 개최됐다.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박정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찬양사역자 이정열 자매가 특송을 부른 뒤 제리 디어맨 목사(더락교회 담임)가 '이제는 기도해야 할 때'(마16:1-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육기돈 목사(포스퀘어교단 한인교회 대표)가 축도했다.

박정기 목사는 "더락한인교회를 창립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말한 뒤 "저희교회는 come, hear, do의 목표로 찬양, 기도, 제자훈련, 그리고 소그룹 모임

으로 사역을 하게 된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가꿔나가자 한다"고 말했다.

더락교회는 영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그리고 한국어로 예배하는 4개 회중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이다. 현재 미국 전역에 13개의 교회가 설립이 됐으며 더락한인교회가 마지막으로 설립됐다. 예배는 주일 오전 9시와 11시30분, 그리고 오후 6시에 영어예배가 있으며 한어주일 찬양예배는 매주일 6시에 갖는다. 교회주소는 101 E. Orangethorpe, Anaheim, CA

▲문의: (213)327-8095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제9회 웨슬리언 연합찬양제
남가주 지역 웨슬리언 연합 활동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제9회 웨슬리언 연합찬양제가 오는 27일(주) 오후 6시 월셔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개최된다.
▲문의: (213)383-2345

극동방송 미주지사 창립 30주년 감사예배
극동방송 미주지사(5700 Imperial Hwy. La Mirada, CA)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오는 19일(토) 정오에 감사예배를 갖는다. 이번 행사에는 남가주 지역을 방문하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와 극동방송 대전어린이합창단이 함께 할 예정이다. 김 목사는 이 자리에서 영어 자서전 '빌리 김의 생애'(The Life of Billy Kim) 저자 사인회를 갖는다. 이 밖에도 김장환 목사는 16일 오후 7시30분 베델한인교회, 18일 오전 10시30분 아주사파서픽 신학교, 19일 오전 6시 남가주사랑의교회 새벽예배 및 20일 주일예배 1-3부에서 각각 설교할 예정이다.
▲문의: (562)448-1782



APU한인동문회 주최 이사야서 강의에서 강사로 나선 박준서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이사야서는 신약에서 184회 인용된 책 APU한인동문회 주최 이사야서 강의, 강사 박준서 박사

아주사파서픽대학교 한인동문회(대표 최장식 목사)가 주최한 이사야서 강의를 14일 오전 10시 아주사파서픽대학교 LA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강의는 박준서 박사(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서 열 만의 관심을 끌었다. 박준서 박사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성경은 시편이 186회이며 두 번째가 이사야서로 184회 인용됐다. 그만큼 이사야서가 많이 사용됐으며 바울서신, 복음서, 베드로 전서 등에서 많이 인용될 정도로 친숙하게 여긴 책"이라고 설명했다.

박 박사는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 40장에서 55장, 그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로 구분된다"고 언급하고, "신약성경의 이사야서 인용은 70인역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초대교회에서 구약성경은 히브리 원문이 아니라 70인역 번역 성경이 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사야서 40-55장의 메시지의 내용은 위로와 희망이 전환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또한 56-66장은 희망과 위로, 낙관주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특별히 55-66장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행위보다 윤리적 삶과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더락한인교회 창립예배에서 제리 디어맨 더락교회 담임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현인대학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후 8: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손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 www.youngnak.com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p>	<p>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org</p>	<p>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말씀묵상(토): 오전 11:30 EM, 대학부: 오후 6: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626)919-0880, (626)919-0880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p>		
<p>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오후 1:30 주말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380-2779 / Fax: (213)3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sollidrock@gmail.com</p>	<p>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213)380-0071, Cell: (213)215-8523 398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p>	<p>남가주사망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집문예배: 오전 11:20 영양회(영양·KOC, 캠프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중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집문예배: 오전 11:00 영양회(영양·KOC, 캠프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www.djkc.org 15411 S. Figueroa St., Gaena, CA 90248</p>	<p>동문교회 담임목사: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8625, Fax: (213)483-8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7 www.ygkpc.org</p>	<p>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묻혀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745-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rea, CA 90033</p>	<p>드림교회 담임목사: 정영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6:00(토) Tel: (626)919-0880, (626)919-0880 301 S. Kingsley Dr., Brea, CA 90020</p>
<p>미주영광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영양) 주일 3부: 오전 11:00 주일 4부: 오후 2: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mjc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Tel: (310)749-0577 3521 Lomita Ave., Torrance CA, 90505</p>	<p>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영양) 성인영어예배: 오전 11:00 대학영어예배: 오후 1:00 영양회: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949)48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저녁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626)793-6412 301 S. Kingsley Dr., Brea, CA 90020</p>
<p>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월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요예배: 오전 11:00 주요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새가족센터: 3659인 24시간 오픈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p>	<p>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www.socalsamsumchurch.org Tel: (714)649-9299 Fax: (714)649-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stonetv.com / e-mail: pastor@cornestonetv.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p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장로교 4개 교단 일제히 총회 개막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과 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가 14일 역사적인 제100회 총회의 막을 올렸다. 예장백석과 대신은 이날 통합총회를 열어 교단 통합을 마무리 짓고, 국내 3대 교단으로 발돋움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은 15일 총회를 열어 39년 전 분열한 예장고려와 통합하기로 결의했다.

◇예장백석·대신 통합총회=예장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과 대신(총회장 전광훈 목사)은 이날 경기도 화성시 라비돌리조트 1층 그랜드볼룸에서 통합총회를 개최했다. 양 교단이 통합 논의를 시작한 지 17년 만이다. 통합교단의 총회장에는 장종현 목사를 선출했다. 이번 통합으로 양 교단은 7000여 회회를 둔 한국교회 제3의 대형교단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예장대신 측 일부 인사들은 통합총회에 반발하며 별도의 총회를 개최해 논란을 일으켰다.

양 교단은 통합선언문에서 “오늘 통합은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될 것을 명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며, 십자가 희생으로 막힌 담을 허무신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기독교교신교 130년과 광복 70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우리의 통합이 작은 밑일이 되어 한국교회는 물론 우리 사회가 분열을 마감하고 새로운 연합과 일치의 역사를 시작하는 원년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통합총회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총회’(창 2:24-25)를 주제로 15일까지 열린다. 총회에선 한국교회를 복음으로 지키고 세속화의 물결을 저지하는 데 뜻을 모을 계획이다. 종교인 과세와 이슬람 확산,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반대, 역사교과서 왜곡 등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선언문도 채택한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는 축사에서 “통합총회를 축하드린다”며 “분열의 역사를 딛고 대통합을 이룬 백석과 대신 교단이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궁하게 발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말했다.

예장대신은 이날 통합총회에 앞서 라비돌리조트 2층 메이플룸에서 제50회 총회를 열고 통합과 관련한 안건을 처리한 뒤 통합총회에 합류했다. 하지만 통합에 반대하는 대신개혁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총회장 밖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통합총회는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며 교단순호를 다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 경기도 광명 함께하는교회에서 ‘예장대신 제50회 총회’를 별도로 개최했다. 이들은 총회가 불법으로 정계한 총대들의 회복과 새 임원 선출, 비상수습전

권위원회 선임, 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예장합동=대구 동구 안심로 반야월교회(이승희 목사)에서 예배를 드리며 제100회 총회를 시작했다. 백남선 총회장은 공의로운 발언들이 총회를 채워가게 하자고 강조했다. 백 총회장은 “총회 활동을 하면서 가뭇 유대를 흉내내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교단을 세워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148개 노회 1529명(목사 766명, 장로 763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회소 채택 후 임원 선거에 돌입할 예정이던 총회는 시작부터

뻘뻘거렸다. 과거 남울산노회 소속이었던 울산남교회의 노회 소속 관련 분쟁으로 평동노회에 회원권이 있는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20여 분간의 논쟁 끝에 백 총회장이 총대들에게 찬반을 물었고 결국 평동노회에 회원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로써 평동노회 소속으로 목사부총회장 후보에 출마했던 장대영(수도중앙교회) 목사의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회가 개최되자마자 목사부총회장 후보 한 명이 제외되는 조류의 사태가 벌어졌다.

총회 장소인 반야월교회 입구에서는 총대들의 관심을 호소하는 플래카드와 피켓 시위대가 등장하는 등 소란스러웠다.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를 지지하는 성도 130여명은 “제자교회의 노회소속은 중립입니다”를 외치며 노회 분립 움직임이 불법임을 주장했다. 이들은 “한서노회분립위원회(위원장 이성택 목사)가 ‘중립’인 제자교회를 한서노회에 소속시켜 분립하려고 한다”며 “제자교회는 지난 97·98·99회 총회 결의에 따라 아직 노회소속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서노회에 소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총회한준 지방신학교 신대원생들이 참석했다. 나흘간의 회무 일정 중 첫 순서로 치러진 임원선거에서는 목사부총회장 채영남(광주 분향교회) 목사가 총회장직을 승계했다. 개회예배 설교를 맡은 채 목사는 총회 주제인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를 제목으로 “다양한 갈등이 교회에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화해를 명령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100년은 또 다른 도전과 고난의 시기가 될 것”이라며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총회에선 총회연금제단을 둘러싼 논란이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총회연금제단은 최근 모 업체에 대한 투자 적절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제단은 또 지난해 99회 총회에서 연금제단 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줄였는데도 이를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가 ‘레마선교회 이명범씨를 이단에서 해지해 달라’고 청원한 것도 관심사다. 담임목사 청빙이나 연임 시 시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요청과 특별위원회로 있는 여성위원

들을 총회신학원 수료학비가 과다하다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총신대 운영이사회의 지난 7일 ‘총회신학원 수료학비 하향 조정의 건’에 대해 6주 수업에 225만원인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성추행 논란을 빚었던 전병욱(홍대새교회) 목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대도 총회장 입구를 지켰다.

예장합동은 18일까지 ‘총신대에 대한 총회의 감독권 강화’ ‘이단 논란 단계에 대한 대응’ ‘목회자 윤리 지침 마련’ ‘교회 세습 방지법’ ‘동성애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논의·처리한다.

◇예장통합=충북 청주 상당교회(정삼수 목사)에서 제100회 총회를 개막했다. 총회에는 전국 65개 노회의 목사 및 장로 총대 1413

예장 백석·대신, 통합총회장에 장종현 목사 추대 예장합동 총회장 박무용 목사, 부총회장 김선규 목사 예장통합 총회장 채영남 목사, 부총회장 이성희 목사 예장고신, 고려와 통합합의안 통과...총회장 신상현 목사

명이 참석했다.

나흘간의 회무 일정 중 첫 순서로 치러진 임원선거에서는 목사부총회장 채영남(광주 분향교회) 목사가 총회장직을 승계했다. 개회예배 설교를 맡은 채 목사는 총회 주제인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를 제목으로 “다양한 갈등이 교회에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화해를 명령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100년은 또 다른 도전과 고난의 시기가 될 것”이라며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총회에선 총회연금제단을 둘러싼 논란이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총회연금제단은 최근 모 업체에 대한 투자 적절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제단은 또 지난해 99회 총회에서 연금제단 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줄였는데도 이를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가 ‘레마선교회 이명범씨를 이단에서 해지해 달라’고 청원한 것도 관심사다. 담임목사 청빙이나 연임 시 시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요청과 특별위원회로 있는 여성위원

을 분담기로 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광도희 목사)는 강릉 실내종합체육관에서 총회를 연다. 강원도의 위상을 높이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강릉시와 협력하기로 했다.

보통 교단마다 총회 장소를 정하는 관례가 있지만 자원하는 교회가 있으면 우선권을 주기도 한다. 예장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이 그런 경우다. 예장통합은 이번에 청주 상당교회(정삼수 목사)에서 총회를 연다. 상당교회가 자원했다. 교회가 총회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예장통합 관계자는 “총회 장소로 쓰이면 비용이 3억원이나 들고 특별한 혜택도 없다”며 “하지만 성도들은 교단 총회를 치렀다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예장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도

에 따라 총회 결의가 준수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와 총회 재판국을 비롯한 주요 위원회의 임원들을 총회 현장에서 직접 선출해 깨끗한 총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한 목회 계승, 목회자 세금 납부, 재정적·성적 타락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 해안을 제시해 미래 세대와 사회에 분이 되고 총회가 새로운 100년을 기약할 수 있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회를 상설화해달라는 현의안도 올라와 있다. 98·99회 총회에 이어 올해도 녹색총회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회의 인쇄물은 가능한 재생 용지를 사용하고, 물병에 든 생수 외에 모든 음식물의 회의장 반입이 금지된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티백이나 인스턴트커피도 제공하지 않는다.

◇예장고신=천안 동남구 충절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65회 총회를 개최하고 예장고려와의 통합 당위성과 방법 등을 명시한 통합합의문을 통과시켰다. 예장고신이 예장고려와 통합하면 2113개 교회, 55만 성도 규모의 중대형 교단으로 발돋움한다.

470여명의 총대들은 “고신총회와 고려총회의 통합은 성경적·한국교회사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고려총회와의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의 통합결의문 수용안을 가결했다. 양 교단은 1976년 성도 간 사회법정 소송에 대한 이견 때문에 분열됐다.

통합합의문에는 ‘예장고려와 총회 회기, 교회역사, 신학교 졸업기

수 등을 병합한다’ ‘고려총회의 노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합총회의 행정 개편과 함께 지역노회로 편성한다’ ‘양 총회 소속 목사, 선교사, 교역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며 은급제도 등은 동등하게 적용한다’ 등이 포함됐다. 예장고신은 예장고려와의 통합총회를 16일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개최한다.

신임 총회장에는 신상현(울산 미포교회) 목사, 부총회장에는 배광호(부산 남천교회) 목사가 선출됐다. 사무총장에는 구자우 현 사무총장이 307표를 얻어 156표의 양승환(성남중앙교회) 목사를 제치고 당선됐다. 장로부총회장에는 김진옥(모라중앙교회) 장로가 290표를 얻어 당선됐다.

총대들은 여성안수연구위원회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의뢰해 제작한 연구보고서에 따라 여성안수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교수회는 보고서에서 ‘구약에 여성안수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없고 신약에도 여자를 안수해 직분을 맡긴 경우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정 지역 여성교사에 대한 한시적 세례권 부여도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안한 ‘차별적 담세운동’에는 동참하기로 했다.

차기 총회장이 시무하는 교회가 아닌 대구 반야월교회(이승희 목사)에서 총회를 연다. 총회장 후보인 박무용 목사가 시무하는 대구 황금교회의 규모가 작아 이번에 서기로 입후보하는 이승희 목사에게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회장 신봉수 목사)는 총회장 후보인 임종원 목사가 시무하는 충남 천안 명문그리스도의교회에서 총회를 연다. 예장고신(총회장 김철봉 목사)은 총회 장소를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 해마다 교단 신학교인 천안 고신대에서 열기 때문이다.

동성애 예방책자·동영상 공개

동성애대책위...국민일보 홈페이지도 확인 가능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동호로 엠베스터호텔

에서 주요 교단총회 때 배포할 동성애 예방책자와 동영상을 공개했다.

64쪽 분량의 ‘동성애 STOP!’ 책자(사진)는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에이즈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남자 동성애자의 실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와 한국교회의 저지 노력, 동성애에서 벗어난 경험자들의 간증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인권문제’로 포장된 차별금지법 저지운동에 한국교회가 한몫을 내지 않으면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고 선교 자유마저 침해당하는 영국교회와 유사한 상황을 맞게

북한인권정보센터 ‘2015 북한인권백서’ 발간

종교박해 1165건 분석...성경 소지했다고 수용소로, 찬송가 불렀다가 비밀처형

(서울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박종훈)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소장 윤여성)는 10일 ‘2015 북한인권백서(사진)’를 발간하고 종교활동을 하다 종교박해를 받은 북한 주민들의 사례를 공개했다. 종교박해란 특정 종교를 믿었다거나, 종교 상징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을 학대·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최모(여)씨와 어머니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씨 모녀는 최근 지하교회에서 동네 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체포됐다. 북한 보위부에서 침투시킨 가짜 여자 교인이 고발해 모두 잡혀 들어간 것이다. 최씨와 어머니는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

함경북도에 사는 선모씨는 중국에 갔다가 성경책을 갖고 들어온 것이 적발돼 교화소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입소 2년 만인 2005년 12월 사망했다는 통지가 왔다.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양모씨는 탈북하다 강제 송환돼 보위부에 구금됐는데, 열방에서 어떤 남자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 보위부원이 그 남자에게 “기독교 믿은 것을 인정하라” “찬송가를 불러보라”고 말해 찬송가를 불렀다. 그 남자는 그날 밤 사라졌다. 비밀처형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김모씨 가족은 집에 성경책을 갖고 있다고 2005년 1월 강제 가택수색에서 적발됐다. 아내와 딸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 당시 중국에 나와 있던 김씨는 가족이 잡혀간 것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붙잡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

북한인권정보센터 통합인권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북한의 종교박해로 인한 처벌사건은 1165건이 보고돼 있다. 구체적인 종교박해 이유를 살펴보면 ‘종교 활동’이 595건(51.1%)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어

종교물품 소지 277건(23.8%), 종교 전파 127건(10.9%), 종교인 접촉 59건(5.0%) 순이었다. ‘종교물품 소지’는 성경책, 십자가 모형, 종교적 내용이 기록된 책, 메모지, 신문 등을 갖고 있다 적발돼 처벌받은 경우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은 유일사상 체계를 바탕으로 주체사상에서 벗어난 그 어떤 사상, 토의, 토론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그러한 현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가차 없이 ‘조국의 배반자’ ‘간첩’ 등의 정치범으로 낙인찍어 추방, 관리소(정치범수용소) 구금, 공개·비공개 처형 등 구형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박해로 인한 처벌사건을 발생 연대별로 보면 2000년대가 678건(58.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990년대가 289건(24.8%)으로 뒤를 이었다. 50년대 1건, 60년대 2건, 70년대 26건, 80년대 30건으로 증가하다가 90년대 이후 급증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서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

김상현 북한인권정보센터 명예 이사장은 “우리들은 그동안 북한에서 인권개선 조치를 발견하기를 갈망해 왔다”며 “최근 중앙당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금지하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전해졌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갑정은 정권 이후 농업정책의 변화로 식량 생산이 약간 증가했으나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열악한 구급시설도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고 종교박해와 불평등한 교육제도로도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백서에선 구체적인 인권개선 사항을 보고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다.

주일학교 공과에 ‘동성애 문제점’ 기술

예장합동, 한국교회 처음 2016년판 ‘생명의 빛’에 반영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교육진흥원(원장 노재경 목사)은 10일 “다음세대가 동성애에 대해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 교육공과에 동성애 관련 내용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일학교 공과에 동성애 관련 내용이 기술되는 것은 한국교회에서 처음이다.

교육진흥원은 “현재 전국 주일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명의 빛’ 공과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동성애’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진흥원은 연내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2016년판 ‘생명의 빛’에 반영할 계획이다. ‘생명의 빛’은 연간 약 20만 부 제작돼 주일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교육진흥원은 동성애 관련 내용을 웹툰으로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작업은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성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이뤄진다. 교육진흥원은 최근 연구 및 회의를 통해 공과 교육과정과 교육체계를 분석한 뒤 학년별 교육안에 동성애 관련 콘텐츠를 수록하고 교과 제목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동성애 예방책자·동영상 공개

동성애대책위...국민일보 홈페이지도 확인 가능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동호로 엠베스터호텔

에서 주요 교단총회 때 배포할 동성애 예방책자와 동영상을 공개했다.

64쪽 분량의 ‘동성애 STOP!’ 책자(사진)는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에이즈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남자 동성애자의 실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와 한국교회의 저지 노력, 동성애에서 벗어난 경험자들의 간증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인권문제’로 포장된 차별금지법 저지운동에 한국교회가 한몫을 내지 않으면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고 선교 자유마저 침해당하는 영국교회와 유사한 상황을 맞게

중등부 과정에서는 2학년 1학기 과정에 수정안이 반영됐다. 현행 2과에 해당하는 ‘나는 아름답다?’를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로 변경하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과 ‘성 정체성의 의미’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또 창세기 2장 18-25절을 중심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서로 돕는 배필로 사랑해야 함’을 깨닫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등부 과정에서는 동성애가 개인과 가정,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실질적으로 교육한다. 1학년 1학기 3과에 해당하는 ‘로열 패밀리(Royal Family)’가 ‘성경적 가정 YES, 동성애 가정 NO’로 대체된다.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또 ‘동성애를 통한 정상 가정의 파괴’ ‘동성애가 근친혼 및 일부다처 혼인에 미치는 영향’ ‘문란한 성 풍속’에 관한 내용도 체계적으로 수록할 계획이다.

유치부와 초등부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다르게 창조하심’과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됨’에 대한 학습 내용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노재경 총회교육진흥원장은 “교회 안에도 이미 동성애가 들어와 있다”면서 “정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정죄만 해서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바라게 이해하도록 교육하고 바른 교육을 받은 크리스천들이 치유자로서 동성애자들에게 다가서는 것이 동성애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희 총신대 기독교교육학 교수는 “한국교회가 다음세대에 동성애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일에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다음세대가 왜곡된 사랑에 눈 뜨기 전에 올바른 성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요교단 총회장소 선정 어떻게 하나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과 통합 등이 14일부터 각각 대구 반야월교회와 청주 상당교회에서 제100회 총회를 갖는 등 주요 교단들의 총회가 잇따라 열린다. ‘100회’ 총회를 치르는 만큼 고심의 흔적이 엿보인다.

각 교단이 적합한 총회 장소를 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큰 일’이다. 총회 임원과 관계자, 대의원, 자원봉사자 등 많게는 3000명 가까운 인원이 참석하기 때문이다. 당장 주차대수부터 쟁겨야 한다.

이번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예장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과 대신(총회장 전광훈 목사)은 경기도 화성 라비돌리조트를 빌렸다. 장소를 선정할 때 무엇보다 주차대수를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라비돌리조트는 1300대까지 주

차할 수 있다.

총회장소에서 교단 통합을 반대하는 시위 가능성도 총회 장소를 리바돌리조트로 정한 이유 중 하나다. 본래는 경기도 안양 새중앙교회에서 열기로 했으나 통합 반대 시위가 발생하면 새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분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합신(총회장 우종휴 목사)은 경북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총회를 진행한다. 우종휴 총회장이 시무하는 경북 구미 황상교회가 총회 비용

“큰소리 나는 ‘聾총회’ 아닌 ‘聖총회’ 돼야”

교갱협, 예장합동 총회 앞두고 “새 100년 기약하길” 성명서

교회갱신을위한목회자협의회(교갱협·대표회장 이건영 목사)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100회 총회를 맞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에 교단 발전을 위해 행동하는 양성이 될 것을 촉구했다. 교갱협은 성명서에서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시점에 선 교단이 큰소리만 난무하는 ‘성(聾)총회’

가 아니라 거룩한 의미로서 ‘성(聖)총회’로 우뚝 서기 바란다”며 세 가지 입장을 밝혔다.

교갱협은 “지난 7월 총신대 신임 총장과 법인 이사 선임은 총회 결의해 행동하는 양성이 될 것을 촉구했다. 교갱협은 성명서에서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시점에 선 교단이 큰소리만 난무하는 ‘성(聾)총회’

선교의 창 (39)

선교적 측면에서 본 케이프타운 서약(The Commitment)

송종록 목사 | (대학선교, 수필가)



케이프타운 서약이란 무엇인가? 이는 2010년 10월 16일부터 25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제3차 로잔대회가 열렸다. 당시 198개국에서 온 4,200여 명의 복음주의자들이 자리를 같이 했으며 또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접속하였다.

이 대회는 로잔의 정신과 신학을 재확인하면서 21세기 들어 급변하는 글로벌 상황에서 기독교 선교가 당면한 도전과 위기를 밝히는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들을 모색하였다. 이 내용을 담아낸 문서가 바로 케이프타운 서약이다. 이 서약은 로잔 언약과 마닐라 선언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것의 역사적 연속선상에 있다. 이 서약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적 확신들로 신앙고백이라 할 수 있다. 2부는 그에 따른 행동 요청이며 여기에는 급진적 제자도(Radical Discipleship)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성장과 일치를 지향하는 십자가 중심의 화해(Reconciliation)가 있다. 일하면서 기도하라는 케이프타운 서약의 예언자적 부르심은 교회, 선교단체, 신학교, 직장 등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기대하는 바는 전세계 복음주의자들이 이 서약을 하나된 목소리로 의제를 형성하고, 공공분야에서 사려 깊은 출발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선교적 측면에서 그 중심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알려지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간과될 때 상처받으며 이것이 우상숭배로 나타날 때 분노하게 된다. 이 특성은 하나님께 경외와 영광을 드리기엔 언제나 갈망하며 단호한 태도를 갖게 한다. 모든 선교적 동기들 가운데 최상의 동기는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도 아니고, 소외되고 멸망당하는 죄인들에 대한 사랑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불꽃처럼 타오르는 거룩한 열심이다. 이러한 기독교 선교의 궁극적 목표 앞에는 모든 무가치한 동기들은 사라지게 된다.

2. 세상을 향한 급진적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진리이시다. 그리스도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의 진리는 명제적일 뿐 아니라 인격적이며 상황적일 뿐 아니라 보편적이고 현재적일 뿐 아니라 궁극적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진리의 사람들로 부름 받았다. 우리는 진리를 살아내야 한다. 진리를 살아낸다는 것은 어두운 마음에 복음의 영광의 빛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 신실함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얼굴에서 진리를 볼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복음의 진리를 말로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선교에서 필수적이다. 진리로 사는 것과 선포는 반드시 함께 가야만 한다.

성경적 선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장 명백한 현재적 표현인 교회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구세주를 위해 살아가는 화해를 이룬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하나님과의 화해와 서로간의 화해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의 추구의 근거이자 동기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화해 없이는 평화를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진정이 담긴 지속적인 화해는 과거와 현재의 죄에 대한 인정,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상처받은 자에 대한 고백,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을 요구한다.

분열된 교회가 분열된 세상에 줄 수 있는 메시지는 없다. 화해된 일치의 삶에 대한 우리의 실패는 선교의 진정성과 효율성을 방해하는 주요 장애물이다. 우리는 가장 깊이 있는 연합은 영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가시적이고 실제적이며 지상적인 연합의 선교적 능력을 더욱 깊이 깨닫길 바란다. 따라서 우리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공동의 증거와 선교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분리하려는 모든 유혹을 거부하고 어디에서든 화해와 회복된 일치의 방법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맺음 말

로잔언약의 핵심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1974년 세계복음화의 과제를 위해 소집되었던 제1차 로잔대회는 결실로 성경적 복음과 수많은 미전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한 세상의 변혁을 기대하신다.

세상은 주께 생명을 드린 제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다.

급진적인 제자도가 아니고는 이 세상을 거스를 수 없다.

1.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1)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2)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3)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한다. 4)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5)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한다. 6)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7)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다. 8)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한다. 9)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 10)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사랑한다.

이상은 본 대회에서 언급되었던 신앙고백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세계복음화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우선성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사랑을 통해 그 믿음을 드러낸다. 하나님, 사랑, 교회 그리고 선교의 관계를 존 스토틀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나라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이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특심(jealous)을 내야 한다. 이 특심이

겸손, 사랑, 온전함, 관대함, 그리고 종의 길을 걸으며 그를 따름으로 그를 따르는 것이다. 제자도와 제자 삼는데 실패하는 것은 우리의 선교의 가장 기초적인 차원에서 실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주님의 부르심은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며 복음이 가져온 변화를 사랑한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급진적인 제자도란 말씀으로 사는 자이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다.

3. 세상을 향한 십자가 중심의 화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 “아버지여,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고 기도하셨다. 이 명령과 기도는 선교적이다. 사랑은 하나님을 요구한다. 사랑은 정직할 것을 요구한다. 사랑은 연대를 요구한다. 교회는 성령의 교통을 나누는 은혜와 순종과 사랑의 공동체이다. 그러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들과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풍성하게 드러낸다.

종족들을 보게 되었으며 기독교 선교의 통전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로잔대회는 전 세계 수많은 지도자들을 포함해 세계복음화를 위한 300개 이상의 전략적인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제3차 로잔대회인 케이프타운 대회는 2010년에 모여 로잔 언약과 마닐라 선언을 재차 확증했으며 나아가 10개 항의 신앙고백과 더불어 교회의 행동강령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그리고 참회와 더불어 그 진리들을 도전적인 방식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하기를 간곡히 권면하고 있다.

명확한 사실은 이상의 세 문장은 성경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한 핵심 진리들을 신학적으로 정립했다. 신학이 없는 행위는 근본주의로, 행위가 없는 신학은 공론으로 급속히 추락하므로 이 둘은 함께 가야 한다. 신학의 틀을 이룬 사상은 행동을 수반하며 행위의 반복은 문화를 낳는다. 우리가 추상적이고 때때로 추상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급진적인 제자도를 걸을 때 생명력이 있고 세상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부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때밀러 내려가든지 아니면 거슬러 올라가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나와 교회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러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납하겠느냐”(말 1:8)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헛된 예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말1:10).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형식적인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 말고 솔로몬이나 욕함을 깨뜨린 여인처럼 참 믿음에서 우리나라 오는 진정한 감사인 넘치는 감사로 마땅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진정 넘치는 감사는 참으로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4. 오직 하나님의 자녀 됨으로 인한 감사가 더욱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사람은 보통 좋은 것을 받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대신에 영생이 주어졌으며 하나님의 사랑, 보호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23:1)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갖가지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평생 구하는 모든 복을 다 합쳐도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복에 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된 것은 복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직 주의 은혜로 값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황송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 됨으로 인한 감사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가장 큰 감사요 이 감사는 항상 드릴 수밖에 없는 감사요 이 감사는 영원한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감사입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로 병들어 죽어간다 할지라도 이 감사만은 항상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내 재능 내 재산 내 목숨을 다 바쳐 감사해도 부족함을 느끼는 감사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갖가지 감사가 다 넘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으로 인한 감사, 즉 하나님의 자녀 됨으로 인한 감사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신자도 출세하고 성공하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허락과 선지자의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합3:17-18)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받은 구원,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됨으로 인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야말로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 극히 아름다운 감사와 감사중의 감사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감사가 우리의 삶속에 늘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종교뉴스

구라파 난민 위기: “모스크도 지어줍니까?”

구라파 난민문제는 구라파의 위기라고 서방언론들은 보도한다. 터키 해변가에 시체로 떠 있는 시리아 꼬마 아이ylan 쿠르디의 사진은 온 세계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문명세계에 이러한 처참한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현대 국제사회는 문명과 야만이 함께하고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있다. IS의 잔인성으로 시리아와 이라크가 가장 많은 난민을 낳고 있다. 금년초 일본 NHK는 아랍은 붕괴하고 있다고 특집 보도하였다. 그것은 거의 현실화하고 있다.

무슬림 난민문제는 정치 경제를 떠나서 종교적으로 구라파에 위기이다. 이미 이슬람포비아(이슬람 공포증)로 진통을 겪고 있는 프랑스는 에브도 사건으로 이민을 받을 수도 없다. 반면 인권운동을 선도한 국가로 안 받을 수도 없는 처지이다. 마틴 루터의 고향 옐름트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의 한 여성이 노골적으로 환영하는 시 직원에게 “모스크도 지어줍니까?”라고 물었다. 일찍 구라파의 한 이슬람 전문가는 구라파가 “유라비아”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우려하였다.

왜 독일은 난민을 환영하는가?



동구, 특히 헝가리는 아예 철조망을 쳐서 난민유입을 막고, 심지어 헝가리의 한 여기자는 철조망을 넘으려는 시리아 난민을 발로 차서 호된 비난을 받았다. 헝가리 수상은 노골적으로 우리는 무슬림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동구권은 난민에 아예 빗장을 치고 있다. 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 특히 독일은 난민을 환영하는 소문이 아프간까지 들려 아프간의 청년들이 독일가려고 안달하려고 뉴욕타임지가 보도한다. 왜 독일은 난민을 환영하는가?

오늘 아침(14일 아침: 미얀마 시간) CNN 객원해설자 파리트 자카리아는 독일은 2차 대전 홀로코스트에 대한 속죄로 난민을 환영한다고 칭찬하였다. “회개하는 독일”을 강조하였다. 회개를 모르는 일본과는 정 반대이다. 그러나 반면 독일의 인구감소는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민을 받음으로 67억분의 추가 예산에도 불구하고 환영하는 이유는, 2060년이 되면 근로자 두 사람이 한 명이 노인을 먹여 살려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된다. 이민자로 공장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게 한다. 그리스 경제위기에 인색한 메르켈이 난민환영으로 국제적으로 칭찬을 받고 있다. 반면 난민을 거부하는 구라파 나라들은 독일 때문에 난민을 유입시키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한다. 독일 내에서도 반대 데모가 심각하다.

무슬림 난민에 냉담한 이라크국가들



서구 구호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은 이라크국가들이 무슬림 난민에 냉담하다고 맹비난하는데, 도리어 큰 “소리”로 대꾸를 하며, 심지어 미국이 이라크,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고 러시아 이란이 아사드를 지원한 것을 비난한다. 이라크국가들도 시리아 난민을 지원하겠다고 큰소리친다. 그런데 액수로 따지면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된다. 미국이 11억불을, 사우디는 18억40만불을, 쿠웨이트는 3억만불 가량 지원하였다. 시리아 난민들은 노골적으로 구라파에 희망이 있지, 걸프국가들은 별 볼일 없다고 불만을 털어놓는다. 심지어 한 시리아 난민은 걸프국가들이 테러리스트는 지원해도 난민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움마(전세계적 이슬람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슬람 역시 이념적 달레마에 처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은 서방의 잘못이 아니라 수니파, 시아파의 대리전에 백성들만 죽어간다. 큰 4년의 내전에 이미 20만 명 이상 죽었고 9백만 이상 백성들이 나라를 떠났다. 나라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IS의 폭력, 살인 때문이라고 한다.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는데 두고 볼일 일이다. 터키, 요르단, 레바논 등에 시리아 난민수용소는 거의 반감속이라고 난민들이 불평한다. 이 소문을 듣고 목숨을 걸고 구라파로 간다. 오늘 한 시리아의 한 청년은 8킬로의 바다를 헤엄쳐 그리스의 한 섬에 도착하였다고 CNN이 보도하였다.

난민은 선교의 기회이다

20세기 후반은 헌팅톤이 말한 문명충돌(실은 종교충돌)에 돌입하였다. 21세기 첫 해 911테러는 이슬람 테러와의 전쟁의 서막을 고한 것이다. 종말적 종교탄압이 갈수록 증가, 많은 선교사들이 부득이 선교지를 떠났다. 선교의 문이 닫혔지만 지금 선교의 문이 크게 열리고 있다. 난민은 선교의 큰 기회이다. 이유는? 역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와 70년대 동남아 소승불교국가들이 공산화하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였다. 동남아 대부분 국가들은 60년대 선교사들의 재산이 국유화되고 서양 선교사들은 추방당하고 현지교회 지도자들은 구속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라오스 공산화가 되면서 많은 난민들이 나라를 떠났다. 태국의 난민 캠프는 불교도들이 손을 놓은 사이에, 기독교 NGO들과 선교단체의 운동장이 되었다. 서방나라들이 난민을 받아들였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 지금은 자기를 나라 복음화와 선교에 열심하는 자들이 많다. 미국으로 간 자국민들이 돈과 복음을 들고 자기 나라를 찾고 있다.

이제 공은 서구의 기독교회와 선교단체에게 넘어간 셈이다. 이미 난민들에게 봉사하는 서양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선교는 물론 간단하지 않다. 아랍어가 되는 구라파의 한국 선교사들에게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한국교회와 멀지만 지원할 때가 왔다. “이슬람 선교”를 외친 한국교회, 국내도 구라파도 좋은 선교지가 되고 있다. 역사는 심판의역사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역사이다. 그동안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많은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큰 역사의 전환점에 있다. 서구 교회에 도전이자 동시에 기회이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7)



라흥채 목사
(뉴욕제자교회 담임)

이방인의 구원계획

사도행전

다니엘 9장 24절을 보면 이삭라엘 구원역사는 70이레로 정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 구원계획은 이삭라엘 백성의 구원계획이요, 현재는 BC가 끝나고 AD 2015년이 되었다. 다니엘 9장 25절 말씀에 69이레의 초점인 예수님이 오셨고, 69이레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졌었다. 십자가는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그러나 주님은 69이레와 70이레 사이에 이방인을 구원하는 시간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사도행전시대요 이방인의 구원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시대 이방인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다. 이방인의 구원시대에는 최고의 영적전쟁터이며, 성령으로만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이방인의 구원계획시대이다.

이방인의 구원 시작은 교회로 시작해서 바울서신, 목회서신, 일반서신서를 통해 최고의 영적전쟁을 하는 곳이 이방인의 구원이다. 그 속에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은 깨어난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성령이 강림하신 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회개가 일어났고, 앉은뱅이가 고침을 받고(행3:2),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하였다(행2:44-47).

이렇게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신을 나타내사 사십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행1:3).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행1:4)고 하셨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며, 저

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사건이 내려오고 있다. 허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기이히 여기니라(행2:1-7).

그러므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나라.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여 설

교를 하니 "어찌 할꼬" 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일어나고 이후부터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제자들이 더 많아지고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공동체 일은 너희 가운데 성령과 공혜가 충만하며 정찬을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되 우리가 그 일을 저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을 전부하리라(행6:2-4).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일곱 집사를 세우므로 예수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 늘어감을 알고, 유대인들은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기위해 사도들을 감옥에 넣어 가두고 회당에서 지 못하게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속여 가두어 두었던 제자들이 다 풀어 다시 회당에 세우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일곱 집사 중에 스테반 집사는 순교를 당한다.

그 후 더욱 핍박이 사도들이나 예수 믿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

나니 핍박을 피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빌립은 사마리아 전도자로 복음의 확장이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때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회심하여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사울이 바울로 된다.

또 사도들은 유대인들만 전도를 하였으나 어느 날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꿈의 환상을 보았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행10:9-16) 그 안에는 구약에서 선별된 짐승이 아니라 땅에 있는 각색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소리가 있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 하였삽나이다, 한대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릇 보자기는 곧 하늘로 올리워갔다(행10:16).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왜 더럽다 하느냐 하네네 베드로가 일어나 전도했을 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더니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며, 성령의 인도로 더욱더 복음전도에 열심 하는 이것이 바로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인도로 복음이 전하여 지기 시작한 일이다 이방인의 구원사역

베드로가 무사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다. 이 신앙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심과 같은 베드로의 신앙이었다.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행21:18-19) 그러므로 베드로는 오늘 나는 아직은 젊었으니 내일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무사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 갑자기 한 천사가 발로 잡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며 일어나라하여 밖으로 나와 보니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감옥에서 풀려 나온 사실을 알게 된 이 일들은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행1:8) 여실히 보여주신다.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성령이 임하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이 되고 다시 땅 끝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함을 알게 되었다.

사도바울은 1차 전도를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여서 3차로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대를 떠나 땅 끝까지 AD 50년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다. 사도바울은 바나바와 안디옥교회를 세우고(행13:1-15:3) 사울은 2년간을 소아시아

전도로, 갈라디아교회를 세우고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갈라디아교회에서 분쟁의 소식이 들려왔다. 갈라디아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룬다고 하고, 이방인들은 성령으로 구원에 이룬다는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왔을 때 사울은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교회에 이 문제를 올리므로 이룬 공회에서 결정을 구원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구원에 이르는 확정하므로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

사도바울의 2차 전도는 예루살렘에서 마케도니아, 아시아, 헬라지역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여(행16:1-19:3)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에 돌아온다.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의 군대 장관이 알렉산더의 공주와 결혼하여 아 마겔론 지역에 와서 군사 도시를 만들고 사랑하는 공주에게 이 군사도시를 선물로 그 도시에 이름을 공주의 이름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름을 지어 버렸다. 얼마 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소식이 왔다. 데

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한다는 소식을 듣고 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전서가 된다.

조금 후에 또 다른 소식이 왔다. 성도들이 너무나 천국을 바라보며 절제하지 못하는 신앙생활로 인해 즉각 모든 일상생활업무를 중단하고 교회에만 열중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바울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는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후서다.

사도바울은 예루살렘에서 4년에 걸쳐 소아시아를 전도하게 된다 이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자생으로 설립된 로마교회가 있었다. 그 당시 고린도지역은 죄와 성적 타락의 문란이 극에 달하여 사도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서신서를 보낸다. 죄를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고(고전13장),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며 너희 몸은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야(고전3:16) 하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분이심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각 지체를 이루는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만물의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경배를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의식이 예배이다. 특히 성찬예식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셨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의미를 깨닫고 예배와 성찬예식에 참여해야 하는데 고린도교회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행해졌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만이 성찬예식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성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핵심진리이다 그러므로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이야말로 성도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을 사도바울은 강조하면서 쓴 서신서가 고린도전서다. 그런데 얼마 후 고린도에서 답변이 왔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회개했지만 일부교인들은 도리어 거짓 사도들의 기만에 넘어가 바울을 사도권 자체를 부인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내가 무엇인데 누군데 우리에게 "이러라 저러라 하느냐?"고 반문이 왔을 때 사도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자신이 성실히 사도직을 수행해왔음을 변론한다. 나는 주님의 종인 사도요 너희들은 구습

인 헌옷을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인 새

옷 즉 새 창조물이 되라고 쓴 편지(고후5:17-18)가 고린도후서다. 또 사도바울에게 로마교회 소식이 들려온다. 구약에서 바벨론포로 때 유대인들이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일년에 한번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배운 말씀으로 로마에 세운, 자생으로 세운교회였으나, 로마교회 교인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롬6:23) 죄에 대해 관용과 무관심에 처해 있는 로마교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리스도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롬8:1-10; 계5:9-10)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보여준 서신서가 로마서이다.

사도바울은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은 사도바울을 감옥에 넣어 그 당시 총독인 벨릭스에게 사도바울을 재판하러 보낸다. 그러나 바울은 잘못이 없음을 알고 차일피일하다가 석방을 시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시 얼마 후에 사울을 감옥에 넣는다. 이때 총독이 베스도였으나, 사도바울이 로마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판할 수 없고, 또 사도바울을 따로 로마 가이사 법정에서 세우라 하여, 베스도가 허락하니 예루살렘에 로마까지 가게 되고 로마에 도착하며, 로마에서 아그립바왕을 만나는데 그 왕이 사도바울에게 이야기를 한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천거하여 로마에 왔으므로 너는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도바울이 연금 주택에 있을 때 쓴 서신서가 옥중 서신서이다. 그것들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다

그 후 잠시 연금주택에서 해방되어 있는 기간에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인 목회서신서를 쓰게 되었다. 다시 사도바울을 감옥에 넣는다. 이때 사도바울은 이제는 내가 마지막 죽는 날이 왔음을 예감하였으나 다시 목회서신인 디모데후서를 쓴다. 그리고 로마에 와서 5년간을 지내며 많은 고통의 인내로 로마감옥에서 참수형으로 장대한 순교의 잔을 받은 사도바울이다.

사도바울이 AD 62년에 순교 후 일반서신서가 쓰여지기 시작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로 성경66권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불과 100년도 되지 못한 시기에 주님은 사도요한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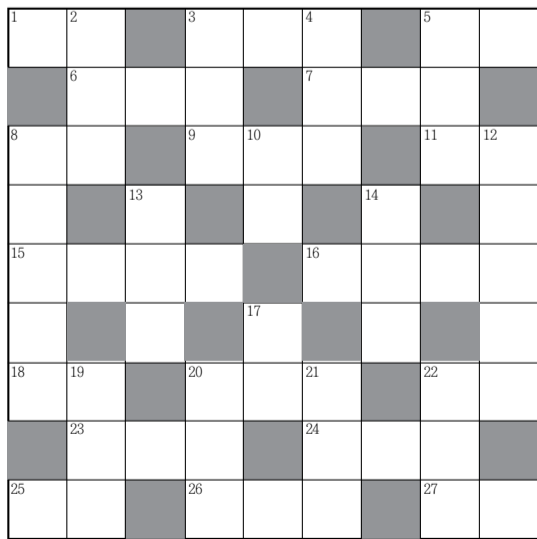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시대는 이방인의 구원시대이며, 최고의 영적전쟁터이며, 성령의 역사로만 구원에 이르며, 이 세상을 이기고 가는 길임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있다.

▲이메일: Gpscenter@gmail.com (다음호에 계속)

단9:25에서 69이레와 70이레 사이에 이방인 구원하는 시간 계시 바울서신 목회서신 쓴 바울 AD62년 사망 후 일반서신서 기록돼 사도행전 시대는 이방인의 구원시대이며, 최고의 영적 전쟁터

십자말 • Cross Word (98)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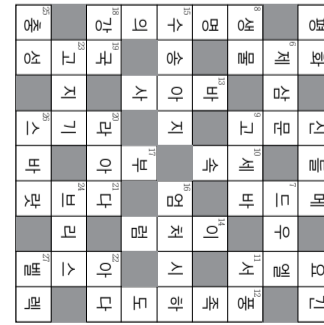
<가로 푸는 열쇠>

1. 화합하고 고요함(눅2:14).
2. 실을 밟아 매는 일(사5:27).
5. 꼭 필요함. 요긴(고전12:22).
6. 세 번째 문(렘38:14).
7. 갓 지파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방백 엘리아십의 아버지(민1:14).
8. 동물과 식물의 총칭(계4:7).
9. 유다 자손 셀라의 후손들이 살던 곳(대상4:22).
11.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출10:19).
15. 새끼소의 수컷(겔45:24).
16. 아내에게 쥐어 주는 사람을 조종하여 일컫는 말(고사성어).
18. 힘이 센 나라(사60:22).
20. 셀라의 자손 마레사의 아비(대상4:21).
22. 레백의 처요 아발과 유발의 모친(창4:20).
23. 창고를 지키는 사람(스1:8).
24. 가나안에 들어가 쫓아낸 족속 중의 하나(삿1:4).
25. 내가 죽도록 OO하라(계2:10).
26. 유대인이 포로가 되어 간 곳(출20).
27. 에벨의 장자이다(창10:25).

<세로 푸는 열쇠>

2.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레5:12).
3. 조선 태종 때, 대궐의 문루에 달아두어 백성이 억울한 일을 호소할 때 치게 한 북(역사).
4. 요단강 동편 고원지대에 있는 중요 도시(민21:30).
5. 12선지 중 한 사람이 쓴 구약성경 중의 하나. 순서상 호세아서 다음.
8. 수정 같이 맑은 OOOOO를 내게 보이니...(계22:1).
10. 세상의 풍속(약1:27).
12.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OOOOO(시104:13).
13. 잇사갈 지파 야하야의 아들이다. 후에 왕위에 오르(왕상15:28).
14. 하나님께서 OOO 사랑하시(요3:16).
17. 애굽인 산파. 지혜롭게 히브리인 산아를 구했다(출1:15).
19. 나라의 창고를 건축해둔 성(왕상9:19).
20. 가나안의 한 성읍인데 여호수아가 점령하여 유다 지파에게 주었다(수10:3).
21. 팔레스타인에 있는 한 지방으로 스블론 자손이 기업으로 받았던 땅(수19:12).
22. 베냐민의 아들(창46:21).

십자말 정답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7면에서 계속)

알렉산더 세베루스 황제(222-235)도 혼합주의적 신앙에 빠진 결과, 기독교에 대하여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막시무스 황제와 제 3차 핍박이 일어나는 사이에 등장한 고르디아누스 황제(238-244)와 필리푸스 황제(244-249) 역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고, 도리어 자유를

허용하였다.

과연 로마 황제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 옳은 것인가? 아니다. 부분적으로 맞을 뿐이다. 기독교에 대한 황제들의 태도는 극히 개인적이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정치적인 안목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그대로 실천

하였다. 이로서 우리는 한 정치인의 마음의 변화가 교회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공감 되었다.

2) 성경이 보인다 - 열왕기서, 로마서 13:1

교회는 정치와 정치인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나? 매우 중요한 실천적인 질문이다. 미국의 헌법은 정교분리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정치와 종교의 독특한 영역이 있음을 알려주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면에서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정교분리는, 교회가 정치를 포함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사회와 관계를 해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주된 삶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사회를 향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와 정치인

들에 대한 관심을 지녀야 한다. 한 정치인이 교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절대적이다. 성경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악한 왕과 선한 왕의 통치가 얼마나 달랐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왕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역사가 기록된다는 것을 안다. 교회를 핍박하는 황제들과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황제들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치와 정치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먼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사명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편에서 일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세워달라고 매달려야 한다. 요즘 이 기도가 더욱 간절하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시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12. 사모의 침실 가꾸기(5)

사모의 침실가꾸기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모의 재치는 그 어느 영성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부부생활은 다른 일반 평신도의 생활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남들이 다 긴장하는 첫날인 월요일은 모두 직장이나 사업에 충실하기 위해 바깥출근이 빨라집니다. 그러다가 주말에는 긴장이 풀려가며 마음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목회자는 주일을 위한 설교준비로 긴장감이 들게 됩니다. 이런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사모들은 생활 자체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모들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스 관리와 영성관리에 더 많은 필요를 느낍니다.

놀라운 것은 사모교실에서 침실가꾸기를 할 때마다 알게 되는 사실 한 가지는 성생활이 한창 무르익어야 할 나이 40

임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축각과 청각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스킨십을 부지런히 받아야 합니다. 아내들은 스킨십을 받을 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스킨십은 신체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부부사이에 부지런히 틈을 이용하여 스킨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서로 허그 하는 것은 매우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남편목사님들이 스킨십에 익숙하지 않거나 쑥스러워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아내들이 잘 설득을 하여 하나의 원칙을 세워 나가는 것도 부부사랑속에 효과가 있습니다.

서로 허그한 상태에서 등을 두드려 주는 것은 건강에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을 자신이 스스로 만질 수 없는 부분이 유일하게 등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서로 허그할 때 만져 주는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척추건강은 모든 건강에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부는 가정의 법칙으로 정해놓고 남편이나 아내가 집을 나갈 때는 의례히 허그로 인사하는 것을 정해 놓고 실천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또 아내들은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매우 좋아합니다. 거기에 비해 남편들은 마음으로 사랑하면 됐지 뭐 일일이 고백을 해야 하냐고 하면서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남성들의 사랑한다는 고백은 신혼 첫날 밤 한번으로 평생의 효과를 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들은 시간마다 순간마다 '사랑해' 라는 고백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 또한 습관으로 배어 있으면 좋습니다.

거기에 비해 남성들은 의외로 '사랑해' 라는 고백보다는 '여보 고마워' 하는 말이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고마워' 라는 단어에는 남편의 업적을 인정해주며 나아가서는 존재감을 더 향상시켜 주는 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사모의 재치는 영성보다 중요... 미리 포기 말고 적극적 자세로 대처 남(시각·후각) 여(청각·촉각), 다른 남자와 남편의 차이점 알아야

대의 사모들이 의외로 성을 포기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50대에 들어서면 갱년기 장애로 인한 홀몬 이상의 원인으로 심리적인 변화까지 오게 되면 목회생활은 울음의 연속이 되어가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조건에서 벗어나야 하는가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물론 성에 대한 지식을 알지도 못하지만, 안다 해도 실제 환경이나 신체 조건이 따라와 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아예 포기하고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사모들의 생활을 누가 알아주겠는지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이신 남편들의 협조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도 좀 트인 목회자를 만난 사모들은 행복한 얼굴로 서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목회자 세미나에 사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조금씩 넣어서 사모들을 구제하는 세미나가 더러 나오고 있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아직도 사모들을 위한 후원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찌하든지 사모들은 젊음이 지나가기 전에 성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신체적인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끈질긴 노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차라리 혼자 독수공방하는 것이 나겠어요'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남편에게 다가 가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른 남자와 자기 남편의 차이점도 동시에 찾아내야 합니다. 아내들이 청각과 촉각이 발달된 것에 비해 남편들의 특징은 시각과 후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중에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목사님 앞에서 애교를 부리거나 하면 목사님은 단번에 눈이 여성도의 다리에 갑니다. 그것을 사모가 나무라거나 음흉하다고 지적해서는 안됩니다.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또한 후각이 매우 발달하여 향수나 기본 좋은 냄새를 풍기고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마음이 쏠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신체구조를 사모들은 잘 알고 평소 남편의 욕구를 들어주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왕이면 보기에 아름다운 옷매무새나 얼굴 화장 등에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의 생리적 현상인 후각과 시각에 만족을 주어야 할 책

내들은 남편에게 작은 일에도 고마워 라고 표현하는 것을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남성들은 유머 감각이 있는 아내보다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지 웃어주며 잘 들어 주는 여성을 좋아합니다. 남편 앞에서 웃겨 보려고 노력하며 말을 앞서서 하기를 즐기는 아내 앞에서는 남편은 입을 다물기 시작합니다.

남편들은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말을 들어줄 아내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남편은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라고 불평하는 아내들은 이런 남편의 심정을 알까요?

한평생 같이 살아도 자기 방식대로 사랑한다고 애를 써온 부부가 3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결국 이혼서류를 작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 닭다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먹을 것을 양보하여 아내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내는 짜증을 내면서 "당신은 30년 동안 이런 식으로 나에게 해왔어요. 나는 닭다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대답에 화들짝 놀란 남편은 "무슨 소릴! 나는 평생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닭다리를 먹지 않고 당신에게 주었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대화는 결국 이혼을 결정하고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채 각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후회스러운 나머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과할 마음입니다. 그러나 토라진 아내는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습다. 그러자 한참 생각하던 아내는 자기의 무지를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다시 사죄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시간 벨이 울려도 받지 않자 불길한 예감이 들어 아내 남편이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숨이 진 채로 아내의 전화를 받지 못하였습다. 숨진 남편을 향해 "여보 내가 너무 어리석었소" 하며 후회하며 남편의 전화 메시지를 보는 순간 아내는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전화메시지의 내용은 바로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하오, 용서해다오"였습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월 진리에 선 자가 할 일(벧후1:12-14)찬543장

베드로 사도는 진리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째, 이미 아는 진리를 기초로 성장하라고 합니다(12). 이미 알고 서있는 진리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영생이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영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자의 성장은 처음 받은 진리를 더함이나 변형이 아니고 그 위에 서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둘째, 생각의 기능을 사용함이 필요합니다(12-14). 영의 거듭남은 우리의 생각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나게 하려고" 미리 말하고 가르쳤 습니다. 놀라운 영적경험 역시 모두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삶은 철저히 계시에 뿌리를 둔 것이고 열매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 성경을 깊이 묵상 해야 합니다.

화 더 확실한 예언(벧후1:16-21)찬376장

진리는 사건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변화산의 놀라운 경험은 성경의 증거보다 약한 것이기에 사도는 우리의 관심을 성경으로 이끕니다. 첫째, 그의 크신 재림의 위엄은 귀한 것입니다. 베드로 생애에 일어난 그 경험은 그의 확증의 뿌리였습니다. 공교로 만든 이야기가 진짜로 둔갑해 혼란을 야기하는 이 시대에 사도가 본 경험을 통해 그 실상을 아는 것이 귀합니다. 둘째, 그러나 성경의 증거는 그보다 더 탁월함

니다. 재림의 영광을 본 경험이 무력할 수 있어 도 성경의 예언은 영원하고 세상이 변해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대한 경험보다 성경의 조용한 소리가 더 권위가 있다고 사도는 주장하며 신앙을 성경에 근거하도록 이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삶이 성경에 뿌리를 내려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성경의 증거를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수 이단의 정체(벧후2:1-3)찬213장

어제나 오늘이나 이단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 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혼탁케 하고 교회를 헐어버립니다. 베드로가 본 이단의 특성은 어떠합니까? 첫째, 이단은 거짓에 근거를 둡니다. 거짓이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모든 것으로 거짓의 아비 사탄에서 나옵니다. 이것 역시 선 생을 통해 거짓교훈으로 우리 영혼을 도둑질 합니다. 진리인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주를 부인합니다. 주는

예수님으로 그의 십자가의 도만이 참 구원을 이룸을 알기에 이단은 언제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얻는 교훈을 경시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아부인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셋째, 그들은 탐욕주의자입니다(2-3). 호색과 탐심이 지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신앙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기준을 따라 분별합니다.

목 경건한 자의 결국(벧후2:4-11)찬212장

첫째,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십니다(5). 노아의 식구를 홍수심판 속에서 건지신 것처럼 경건자는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주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철저한 보호가 따릅니다(7). 소돔 고모라 성에서 고통당하는 뜻이 의로운 마음에 고통을 가진 것처럼 죄 많은 세상에서의 고통은 경건자에게 따르는 분뉘입니다. 무릇 경건케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절대적입니다. 셋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9). 주께서 불의한자는 버려두시나 경건자는 반드시 건지십니다.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은 어떤 시험 속에서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괴할 길을 주십니다. 이것이 연약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주장합니다.

금 불경건한 자의 심판(벧후2:4-11)찬190장

첫째, 지옥심판을 받습니다(4).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 던지듯이 불경건자를 무섭게 내치십니다. 이것은 진리를 떠나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욕가운데 버려두십니다(10).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한 그들은 결국 방탕하고 불경건에 떨어져 정욕대로 살도록 버려두십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것처럼 무서운 저주의 삶이 없습니다. 셋째, 영광의 주를 훼방

합니다(10-11). 자연히 불경건자는 영광의 주를 훼방하게 됩니다. 주님의 위엄은 그 누구도 견줄 수 없음을 알지 못하여 서슴없이 비방합니다. 영광의 천사들도 함부로 다루지 않고 오직 주님의 주권에 위탁하는데 그들은 너무 어둡워 영광의 주를 비방함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이런 경고를 듣고 어둠에서 벗어나십시오.

토 불경건 자의 특징(벧후2:12-16)찬89장

첫째, 이성 없는 짐승과 같습니다(12). 생각이 어둠에 사로잡혀 혼란과 혼돈 속에서 생각하기에 언제나 진리를 떠나버립니다. 육의 생각이 지배하는 삶을 살기를 좋아합니다. 결국에는 무지한 것을 훼방하다가 멸망합니다. 둘째, 세상의 쾌락을 좋아합니다. 낮에는 일해야 되는 때인데도 육적 쾌락에 빠져 신령한 즐거움을 생각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즐김으로 서로 죄를 즐기는 자리에 거합니다. 불경

건은 마침내 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셋째, 음란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발람처럼 자기 탐욕에 맞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경건이라도 내동댕이칩니다. 짐승에게 책망을 받는 기이한 방법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철면피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이 내게 있다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용산구 영등포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9:00 Tel. (031)877-3300-9, Fax. (031)877-8382 (주)110-831 영등포구 신길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형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06-942-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침례인을 위한 헌신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6: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예배: 오전 6:30 Tel. (82)2-2648-3191~3, (82)2-2646-318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토요일은 없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82)32-588-0191, Fax. (82)32-58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용산구 신남동 137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화곡동 17길 29(신림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82)2-786-6579, 새벽(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양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매동구 제기 2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창산구 월영동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3:00 금요일예배: 오후 5:00 금요일예배: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송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2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109-1(104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가족이 함께 TV 보면 긍정적 효과 많다!

WSJ, 최근 연구결과 통해 “관계형성에 도움 준다” 보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족이 TV나 영화, 인터넷 같은 미디어를 “함께 웃고, 이야기 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논쟁을 유발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Watch TV With Your Family: Watching television like they did in the 1950s).



지난달 미국 CBS는 1950년대 클래식 흑백 TV 쇼 ‘아이 러브 루시’를 칼라로 재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 수는 평균 640만 명으로 같은 날 방영된 AMC의 인기드라마 ‘매드 맨’ 최종회보다 두 배나 많았다. 옛날 프로그램과 시청습관에 대한 향수를 보여주는 걸까? 그렇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오늘날 시청방식은 놀라우리만치 새로워졌다.

‘아이 러브 루시’가 방영되던 60여년 전에는 온 가족이 TV앞에 모여 앉아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인 한 명이 평균 4대의 디지털 기기 미디어를 소비한다. 과거에는 채널이 3개뿐이었지만 지금은 평균 189개나 된다. 또한 최근 나온 딜로이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청자의 90%가 TV를 시청하면서 소셜네트워크이나 웹서핑, 이메일과 문자 주고받기 등 다른 일을 동시에 한다. 그럼에도 최근 연구에 의하면 가족이

다.”

요즘에는 자녀와 함께 볼 만한 가족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찾기가 어렵다고 LA 소재 미디어 감시단체 ‘PTC(Parents Television Council)’의 멜리사 웬슨 책임자는 말한다. PTC는 최근 보고서에서 2013년 방영된 가족중심적 프로그램 21개를 검토한 결과 99%가 어떤 형태로든 섹스, 폭력, 욕설 등을 담고 있었다고 밝힌다.

“가족들은 자녀와 함께 봐도 안전한 프로그램을 원하는데 요즘 TV 프로그램 중엔 그런 것이 거의 없다.” 그래서 PTC

2. 과도한 시청은 금물. VCR과 주문형 비디오가 나오기 전에는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일주일씩 짜는 게 보통이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즐거움을 느끼고, 보고 난 후에 일주일간 그 프로그램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음미하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3. 10대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라. 10대 자녀가 자신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고를 때 부모는 그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을 뿐더러 자녀 역시 시청 후 대화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 부모가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는 자녀의 관심사를 고려하는 게 좋다. 일례로 10대 후반 자녀라면 1990년대 시트콤 ‘프렌즈’가 대화를 유도해줄 수도 있다.

4. 함께 웃어라. 가족이 함께 하는 활동은 대개 합력투기와 세대 간 긴장감을 유발하지만,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볼 때는 이러한 장벽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 진화생물학자들은 인간이 웃는 이유는 사회적 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이를 가족 간의 유대 형성에도 활용할 수 있다.

5. 집안 전통으로 만들어라. 매주 특정 프로그램을 함께 본다든지 매년 같은 명절을 함께 보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가족이 어떤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자녀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TV 시청을 함께 한다면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은 치워버리고, 나중에 두고두고 떠올릴 수 있는 소중한 기억을 만드는데 역점을 둔다.

1. 설명해주라. 어린 자녀의 사회정서 스킬을 키우기 위해서는 화면에 비춰지는 내용을 이견 이렇다 저런 저렇다 식으로 설명해주는 게 좋다고 크리스텐슨 교수는 말한다. 자녀가 커가면서는 등장인물이 왜 저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 이야기함으로써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TV에 나오는 것을 최대한 자녀 자신의 경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녀와 함께 어떤 프로그램을 보든 그 시간을 최대한 유익하게 만들어 줄 팁을 소개한다.

함께 시청한 후 설명해주면 감정형성, 경험적용 가능 10대자녀에게 프로 선택권 주고 가족전통으로 확대

함께 미디어를 시청하는 것은 가족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지난여름 ‘청소년저널’에 실린 연구는 633명의 청소년과 그 부모에 관한 장기 데이터를 분석해 TV나 영화, 인터넷 같은 미디어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논쟁을 유발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렇게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노출과 가족기능, 부모관여가 증대됐다.

TV는 어린 아이들의 사회정서 스킬(skill)을 키우는데도 효과적일 수 있다. 물론 유익한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봤을 때 얘기다. 지난해 ‘방송&전자미디어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연구진은 어떤 프로그램이 이런 학습효과를 가장 촉진하는지 평가했다. 주저자인 일리노이 대학 클레어 크리스텐슨 교수는 “공유와 협동 같은 이타적 행동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선택하되” 교육을 주기 위해 부정적 행동을 너무 부각시키는 프로그램은 피하라고 조언한다. “부모가 시청 직후 프로그램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자녀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때 자녀가 긍정적인 소셜 스킬을 학습할 가능성이 커진

본사 방문

남가주목사회 주최로 특별성경세미나 강의한 라흥채 목사



본지를 방문한 남가주목사회 회장 백지영 목사, 라흥채 목사(중앙), 부회장 심진구 목사.

미주서부 지역 목회자를 위한 특별 성경세미나 강의 차 LA를 방문한 라흥채 목사가 15일 오전 본지를 방문해 이번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쳐질 수 있도록 협력해 준 남가주목사회와 언론계에 감사사를 표했다.

14일 세계가교세교교회에서 개최된 특별 성경세미나에는 10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현대 사역자들이 말씀 속에서 사명을 다시금 발견하며 도전받는 시간을 가졌다[관련기사 11면]

남가주목사회 회장 백지영 목사와 부회장 심진구 목사와 동행한 라흥채 목사는 이번 세미나 개최 목적에 대해 “현시대에는 마지막 하나님이 진리가 왜곡되고 있다. 정확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자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하며 “이곳 LA지역 목사회 회장님과 임원들이 앞장서서 협력해주시고 언론과 방송에서도 적극 협력해 정말 은혜 가운데 세미나를 마치게 돼 감동적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라 목사는 “지금 전통적 교회에서 행하는 복음적 전도는 그 어느 세대, 민족보다 월등하지만 성경의 결론 부분이 인봉돼 보지 못하는 위기에 있고 비전을 볼 수 없는 상태다. 예언서와 계시록을 인봉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정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 목사는 뉴욕 플러싱에 집회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건물은 준비된 상태이고 비영리단체로 허락이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선포하고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이어가며 전세계 72억 인구를 향해 문서교회를 통한 구원 사역을 감당해갈 예정이다.

라 목사의 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국어로 이미 출간됐고 영어와 스페인어로도 출간하기 위해 번역을 시작한 단계다.

한편 라흥채 목사 세미나를 주관한 남가주목사회 회장 백지영 목사는 “본 세미나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목사들이 참석해서 감사하다”며,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목회자의 발전을 위해 주어진 일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기독교회관 건립을 위해 전 회기에서 모은 2만3천 달러 시드머니가 있는데 회관건립과 미자립교회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모금을 위해 오는 11월 2-3일 양일간 별문 선상에 있는 ‘미락2’ 식당에서 일일식당을 오픈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여러 교회와 단체들이 행사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자 기자)

<7면에서 계속>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요나단은 40대 후반에 죽은 것으로 보인다. 5)다윗이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하고 5년 반이 지난 즈음에, 다시 말해 다윗이 35세 때에 요나단이 죽었으므로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는 적게는 열 살에서 많게는 열다섯 살까지 난다.

다른 식으로 계산해 보자.

1)개역성경에 따르면 사울이 40에 왕이 되고 40년을 다스리다가 80세에 죽었다(삼상13:1; 행13:21). 2)사울이 죽을 때 위에서 살펴본 대로 다윗은 35세였다. 3)사울이 죽을 때 나이가 80세였으므로 장남인 요나단은 적어도 55세는 되었을 것이다. 4)이렇게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스무 살 이상 차이가 난다.

새번역 성경에는 사울이 30세에 왕이 되고 40년간 다스리다가 70세에 죽은 것으로 되어있다(삼상13:1 ; 행13:21). 새번역을 따르면 다윗과 요나단은 열 살 이상 차이가

난다.

적어도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는 열 살에서 많게는 스무 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열 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친구는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열다섯 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난다면 친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스무 살 나이가 차가 난다면 친구가 아니라 아버지뻘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을 친구인 것처럼 생각해 왔다. 사실 성경에는 어디에서도 이들 관계를 친구로 묘사한 곳이 없다. 하지만 새번역 성경에서 그들이 친구였다고 번역했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삼상18:3, 새번역).

세계 어느 성경에서도 새번역에서처럼 그들이 친구였다고 번역한 성경은 없다. 물론 원문에도 ‘친구’라는 단어는 없다. 요나단은 나이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다윗의 친구였다고 보기보다는 멘토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메일: jinhee1004@yahoo.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6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6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6.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6)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Dates: May 13(Fri)-16(Mon) 2016
- 2) Place: Philadelphia USA

3. Examination Subjects

- 1)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2)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Malachi 4:1-6
- (2) NT Exegesis Text - 1 Corinthians 2:1-5
- (3) Thesis Topic - What is the Biblical view on homosexuality? Elaborate the Church's response on this issue.
- (4) Sermon Text - NT: Romans 1:18-32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2.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 3.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Jameshur63@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YunJoonHur-OTExegesisPaper.pdf)
 -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3) Oral Interview

4. Accompanying Documents

-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 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s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6.
-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5) Curriculum Vitae(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7) Fee: \$150(US). (Pay to the order of - The New Life Presbyterian Church of NY)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6.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5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3)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0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7-20).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3-16 2016 Philadelphia) through Rev. Yun Joon Hur (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7. Submission Address

Rev. Yun Joon Hur / Address: Cell : (718)637-1470 E-mail : Jameshur63@hotmail.com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Hyun-in Kim (201)875-8212 (Hyuninkim@hotmail.com)
-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Yun Joon Hur (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 3) Treasurer of the exam committee : Rev. Dae Up Kim (339)223-2763 (Daenaree@yahoo.com)

총회장: 김영수목사

서기: 조용철목사

고시부 부장: 김현인목사

고시부 서기: 허윤준목사